

NYPI 기획세미나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

- ▶ 일시: 2012년 5월 25일(금) 10:00-12:30
- ▶ 장소: 서울무역전시관 제1전시실 2층 컨퍼런스룸
-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세 부 일 정

사회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 록 10:00 - 10:30

☐ 개 회 식 10:30 - 10:50

개회사: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안재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 조 사 결 과 10:50 - 11:10

발 표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활동 실태 및 요구

발표자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 제 발 표

제1주제 11:10 - 11:30

학교에서의 주5일수업제에 따른 주말활동 운영 현황

발표자 김영삼(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제2주제 11:30 - 11:50

주5일수업제에 따른 지역사회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향

발표자 김지수(군포시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 토 론

제1토론 11:50 - 12:00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방향 I

토론자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제2토론 12:00 - 12:10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방향 II

토론자 정은식(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국장)

☐ 종 합 토 론 12:10 - 12:20

☐ 폐 회 12:20 - 12:30

개 회 사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기획한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청소년활동의 총괄, 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주최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월 2회 적용되던 주5일수업제는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2012년 1학기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른 양상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수업제에 대한 정책 추진체제 및 지원체제 모두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학교와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입장에서 보는 주5일수업제는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2일간의 휴일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주5일수업제는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주2일에 대한 활용 방법을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 시간을 만들고 참여하는 것이 주5일수업제의 진정한 의미라면 적어도 토요일의 학교는 주말 시간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는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논점을 전제로 할 때 청소년정책의 입장에서는 주5일수업제를 학교중심이 아닌 청소년활동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방향 모색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매주 2일간 175일의 휴일이 확보된 청소년의 생각과 시각, 그리고 그들의 생활 특성이 고려된 청소년활동의 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진을 비롯한 직원들과 바쁘신 가운데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5월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목 차

조사결과 발표

-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활동 실태 및 요구 1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발표

- 학교에서의 주5일수업제에 따른 주말활동 운영 현황 39
김영삼(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주5일수업제에 따른 지역사회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향 53
김지수(군포시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토 론

-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방향 I 71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방향 II 77
정은식(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국장)

조사결과발표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활동 실태 및 요구

맹 영 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활동 실태 및 요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활동 관련 인식 및 요구조사는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중 청소년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학생 수와 학교 수에 따라 지역별로 비례층화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학부모는 설문대상 청소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사는 면접조사가 병행되므로 보조자료로써의 의미를 지니는 의견조사 수준에서 각급학교 설문 실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초·중·고등학생	설문대상 학생의 학부모	설문대상학교 교사
유효표본수	3,330명	1,881명	113명
조사 방법	우편 조사		
표본 추출	학교급별, 학년별, 지역별 확률표집(비례층화추출법)		
조사 기간	2012년 4월 3일 ~ 4월 30일		

[그림 I -1] 조사설계

조사는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학교급별, 학년별, 지역별 비례층화추출법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한 후 2012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편조사로 진행되었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의 크기는 청소년 3,330명, 학부모 1,881명, 교사 113명이었다([그림 1-1]참조).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①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 및 학교내·학교밖 주말 프로그램 참여수준 ②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이후 청소년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시간 이용실태 ③ 지역사회 내 활동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실태 ④ 주말활동 관련 인식 및 요구수준 ⑤ 인적사항 등이다. 이와 같은 조사항목들은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가자문 및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설문조사내용의 영역별 하위범주 및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 -1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조사영역	세부항목	비고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수준 및 학교내·학교밖 주말활동 참여수준	○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수준 및 이유 ○ 학교운영 주말활동에 대한 참여수준 및 이유 ○ 학교운영 주말활동 프로그램 종류 및 만족수준 ○ 학교밖운영 주말활동에 대한 참여수준 및 이유 ○ 학교밖운영 주말활동 프로그램 종류 및 만족수준 ○ 학교내·학교밖 주말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 학교 주말활동 운영 실태(교사)	청소년 학부모 교 사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이후 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시간이용실태	○ 생활시간과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예측 ○ 공부, 여가, 수면에 할애하는 시간 ○ 주말 여가활동 실태 및 선호도	청소년 학부모 교 사
지역사회내 활동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수준	○ 지역사회내 활동시설 인지수준 ○ 지역사회내 활동시설 이용수준 ○ 지역사회내 활동시설 프로그램 선호도	청소년 학부모 교 사
주말활동 관련 인식 및 요구수준	○ 주말활동 운영방식 등에 대한 요구 ○ 주말활동 장소 및 비용, 동행자 등에 대한 요구 ○ 주말활동 선택요인 및 효과 등에 대한 인식	청소년 학부모 교 사
인적사항	○ 성, 학교급, 학년, 지역, 성적, 경제수준 ○ 성, 자녀의학교급·학년, 지역, 학력, 경제수준 ○ 성, 학교급, 지역, 직위, 경력	청소년 학부모 교 사

3)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SPSS 17.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주요 배경변인별 교차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이 사용되었다. 교차분석의 통계는 X^2 값을 산정하여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교차분석과 t-검증, 일원변량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배경변인은 성, 학교급, 학년, 지역, 성적(청소년), 교육수준(학부모), 경력(교사), 경제수준 등이었다.

2.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2〉참조). **청소년:** 조사대상 청소년은 3,330명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1,678명으로 전체의 50.4%, 여학생은 1,652명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1.7%(1,054명), 중학교 33.8%(1,125명), 고등학교 34.6%(1,1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16.7%(557명), 인천/경기 28.8%(958명), 대전/충청 11.1%(369명), 광주/전라 12.7%(422명), 대구/경북 10.5%(350명), 부산/울산/경남 15.6%(518명), 강원/제주 4.7%(1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조사대상 학부모는 1,881명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학부모는 408명으로 전체의 21.7%, 여자학부모는 1,473명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학부모 34.4%(647명), 중학교학부모 33.3%(626명), 고등학교학부모 32.3%(6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15.9%(300명), 인천/경기 27.9%(524명), 대전/충청 11.5%(216명), 광주/전라 14.0%(264명), 대구/경북 11.0%(207명), 부산/울산/경남 14.1%(265명), 강원/제주 5.6%(1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조사대상 교사는 113명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교사는 40명으로 전체의 35.4%, 여자교사는 73명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교사 33.6%(38명), 중학교교사 33.6%(38명), 고등학교교사 32.7%(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14.2%(16명), 인천/경기 23.9%(27명), 대전/충청 15.9%(18명), 광주/전라 15.0%(17명), 대구/경북 10.6%(12명), 부산/울산/경남 12.4%(14명), 강원/제주 8.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 조사대상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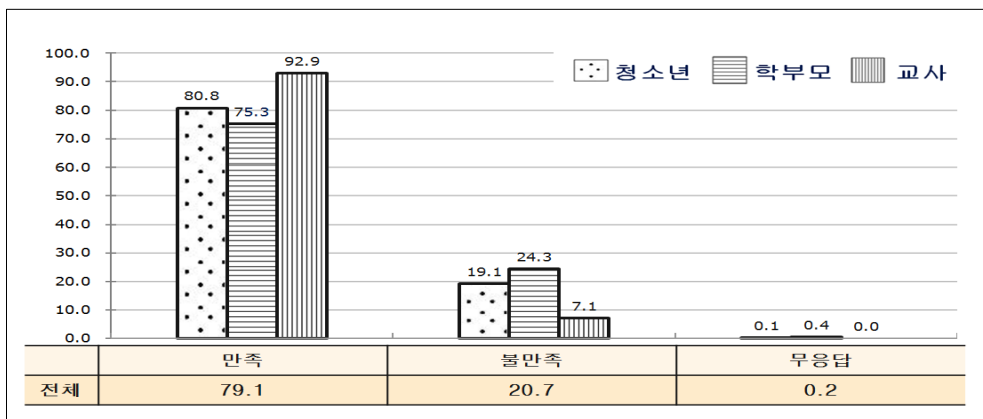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명)	%
청소년	전 체	3,330	100.0
성별	남 자	1,678	50.4
	여 자	1,652	49.6
학교	초등학교	1,054	31.7
	중 학 교	1,125	33.8
	고등학교	1,151	34.6
지역	서울	557	16.7
	인천/경기	958	28.8
	대전/충청	369	11.1
	광주/전라	422	12.7
	대구/경북	350	10.5
	부산/울산/경남	518	15.6
	강원/제주	156	4.7
학부모	전 체	1,881	100.0
성별	남 자	408	21.7
	여 자	1,473	78.3
자녀의 학교급	초등학교	647	34.4
	중 학 교	626	33.3
	고등학교	608	32.3
지역	서울	300	15.9
	인천/경기	524	27.9
	대전/충청	216	11.5
	광주/전라	264	14.0
	대구/경북	207	11.0
	부산/울산/경남	265	14.1
	강원/제주	105	5.6
교 사	전 체	113	100.0
성별	남 자	40	35.4
	여 자	73	64.6
학교	초등학교	38	33.6
	중 학 교	38	33.6
	고등학교	37	32.7
지역	서울	16	14.2
	인천/경기	27	23.9
	대전/충청	18	15.9
	광주/전라	17	15.0
	대구/경북	12	10.6
	부산/울산/경남	14	12.4
	강원/제주	9	8.0

2)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 및 주말활동 프로그램 참여수준

(1)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수준

①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수준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해 청소년(80.8%)과 학부모(75.3%), 교사(92.9%)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초등학교(87.2%), 고등학교(82.9%), 중학교(72.7%) 순으로, 학부모는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7.5%),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7.3%), 중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1.2%) 순으로, 교사는 청소년들과 같이 초등학교교사(94.7%), 고등학교교사(94.6%), 중학교교사(89.5%) 순으로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2]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수준

②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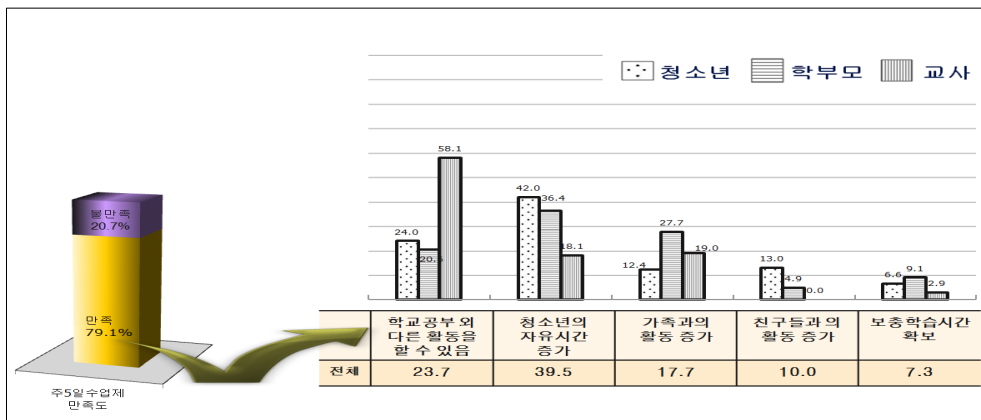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과 학부모는 ‘청소년들의 자유시간(여가시간)이 많아져서’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공부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나만의 자유시간이 많아져서’(42.0%), ‘학교공부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24.0%), ‘친구들과 함께 활동 할 수 있어서’(13.0%), ‘가족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12.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가족보다 친구들과 함께

활동 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말활동 프로그램 기획이나 개발 시 학교급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학부모: ‘아이들의 여가시간이 많아져서’(36.4%), ‘가족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27.7%), ‘학교공부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20.6%), ‘아이들의 개인학습시간이 많아져서’(9.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 비해 ‘가족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37.0%), ‘친구들과 함께 활동 할 수 있어서’(6.2%)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 사: ‘학생들이 학교공부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58.1%),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19.0%),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많아져서’(18.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의 개인학습시간이 많아져서’(8.6%)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3]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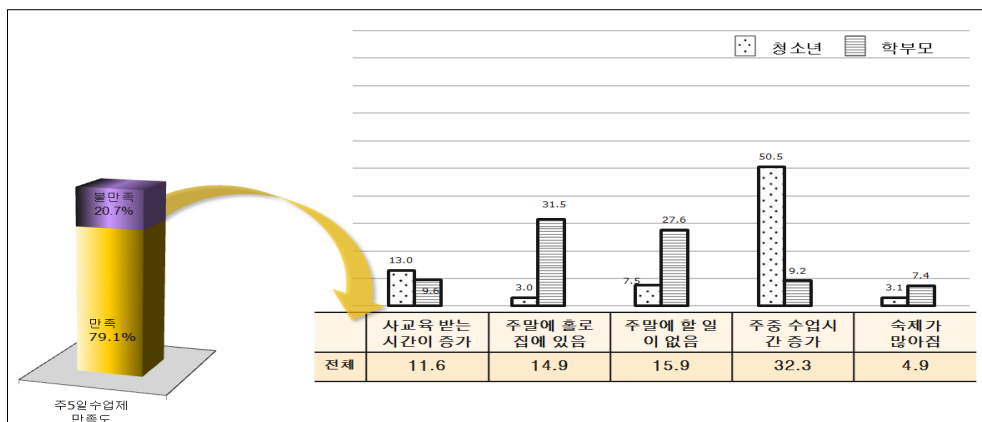
③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불만족 이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은 ‘주중 수업시간이 많아져서’(50.5%), 학부모는 ‘자녀가 주말에 혼자 집에 있게 되어서’(31.5%), ‘주말에 특별히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서’(27.6%)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주중 수업시간이 많아져서’(50.5%), ‘학원 등에서 사교육 받는 시간이 많아져서’(13.0%),

‘주말에 특별히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서’(7.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16.4%)과 중학생(14.7%)이 초등학생(4.4%)에 비해 ‘학원 등에서 사교육 받는 시간이 많아져서’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 ‘자녀가 주말에 혼자 집에 있게 되어서’(31.5%), ‘주말에 특별히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서’(27.6%), ‘학원 등에서 사교육 받는 시간이 많아져서’(9.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 비해 ‘주말에 특별히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서’(초:34.9% 중:27.7% 고: 19.4%)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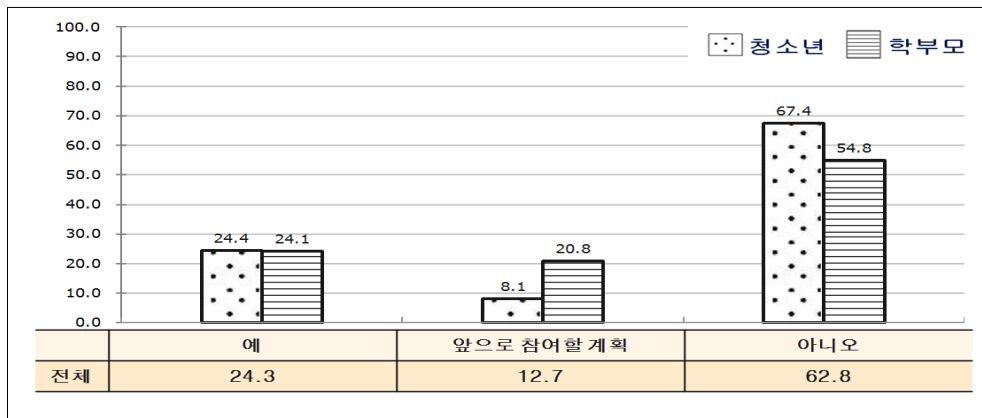


[그림 I -4]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가 불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

(2)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이후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참여수준

①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참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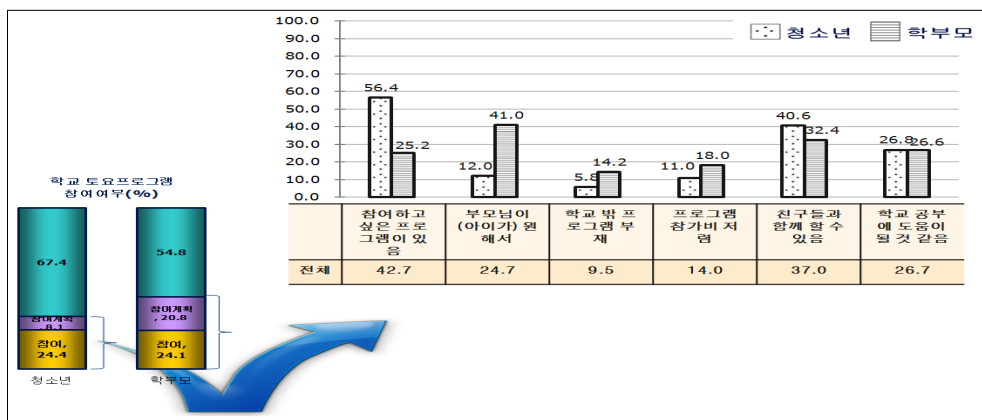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이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3정도 (32.5%)의 청소년이 참여 중이거나(24.4%) 또는 참여계획(8.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과반수정도(44.9%)가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거나(24.1%) 또는 참여시킬 계획(20.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참여시키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5] 학교 운영 토요일프로그램 참여수준

② 학교 운영 토요일프로그램 참여 이유(중복응답)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56.4%), 학부모는 ‘자녀가 원해서’(41.0%)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6] 학교 운영 토요일프로그램 참여(참여하고 싶은) 이유(중복응답)

청소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56.4%),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40.6%),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6.8%), ‘부모님이 권유해서’(12.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51.9%), 고등학생은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49.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청소년:** 학교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고(24.4%)있는 청소년들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58.1%),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41.4%),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5.5%), ‘부모님이 권유하셔서’(12.7%)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계획청소년:** 학교 토요프로그램에 참여계획(8.1%)이 있는 청소년들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51.3%),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38.4%),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0.6%), ‘프로그램 참가비가 저렴해서’(15.9%)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 ‘자녀가 원해서’(41.0%),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32.4%),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6.6%), ‘프로그램이 좋아서’(25.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40.1%),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50.6%)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참여학부모:** 학교 토요프로그램에 자녀가 참여하고(24.1%)있는 학부모들은 ‘아이가 원해서’(57.0%),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27.3%), ‘프로그램이 좋아서’(26.9%),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0.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참여계획학부모:** 학교 토요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시킬계획(20.8%)이 있는 학부모들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38.3%),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3.7%), ‘프로그램이 좋아서’(23.2%), ‘아이가 원해서’(22.4%), ‘프로그램 참가비가 저렴해서’(22.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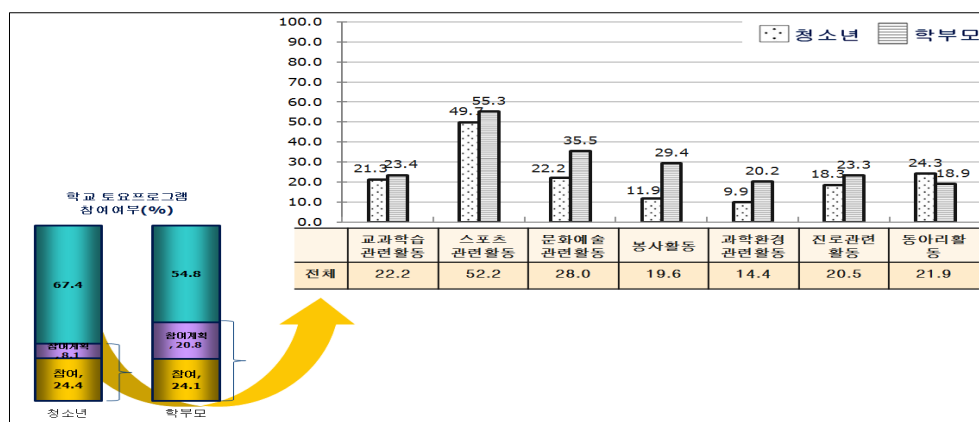
③ 학교 운영 참여 토요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이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49.7%)과 학부모(55.3%) 모두 ‘스포츠관련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스포츠관련활동’(49.7%), ‘동아리활동’(24.3%), ‘문화예술관련활동’(22.2%), ‘교과학습관련활동’(21.3%), ‘진로관련활동’(18.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교과학습관련활동’(42.0%) 비율이 초등학생(7.3%)과 중학생 (10.7%)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청소년:** 학교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고(24.4%)있는 청소년들은 ‘스포츠관련활동’(50.9%), ‘동아리활동’(22.0%), ‘문화예술관련활동’(20.6%), ‘교과학습관련

활동'(20.1%), '진로관련활동'(15.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계획청소년:** 학교 토요프로그램에 참여계획(8.1%)이 있는 청소년들은 '스포츠관련활동'(46.1%), '동아리활동'(31.0%), '진로관련활동'(27.7%), '문화예술관련활동'(26.9%), '교과학습관련활동'(25.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 '스포츠관련활동'(55.3%), '문화예술관련활동'(35.5%), '봉사활동'(29.4%), '교과학습관련활동'(23.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과학습관련활동'(43.2%) '진로관련활동'(37.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참여학부모:** 학교 토요프로그램에 자녀가 참여하고(24.1%) 있는 학부모들은 '스포츠관련활동'(58.1%), '문화예술관련활동'(35.0%), '봉사활동'(27.3%), '진로관련활동'(20.9%), '교과학습관련활동/과학환경관련활동'(20.7%)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참여 계획학부모:** 학교 토요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시킬계획(20.8%)이 있는 학부모들은 '스포츠관련활동'(52.0%), '문화예술관련활동'(36.0%), '봉사활동'(31.9%), '교과학습관련활동'(26.5%), '진로관련활동'(26.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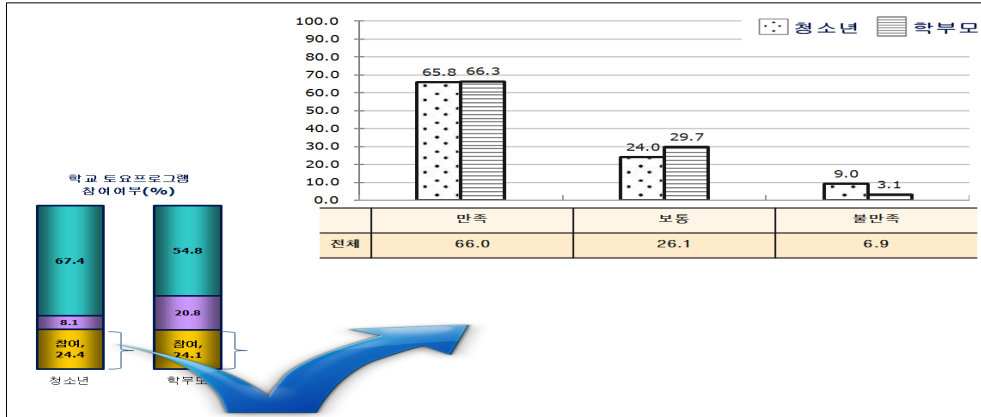


[그림 I-7] 참여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학교 토요프로그램(중복응답)

④ 학교 운영 참여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수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참여하고 있는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65.8%)과 학부모(66.3%)의 2/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초등학교(79.0%), 중학교(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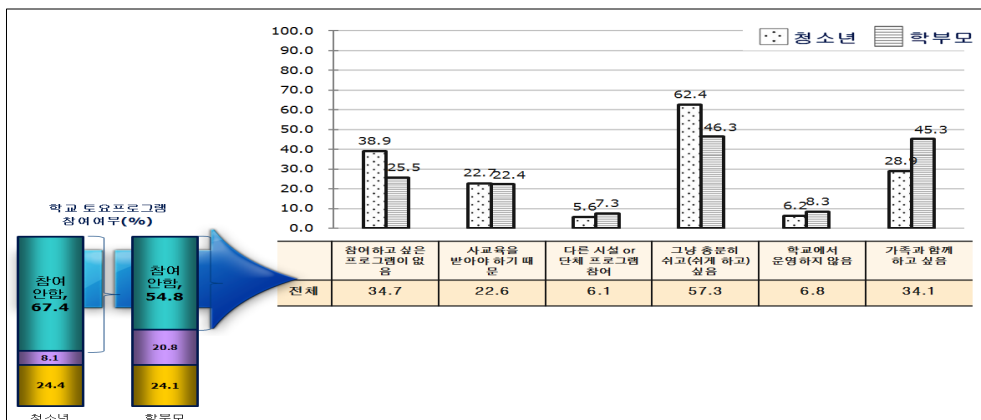
고등학교(50.3%) 순으로, 학부모는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2.3%),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68.9%), 중학생자녀를 둔 학부모(56.8%) 순으로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8] 학교 운영 참여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수준

⑤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불참 이유(중복응답)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62.4%)과 학부모(46.3%) 모두 '그냥 충분히 쉬고(쉬게 하고) 싶어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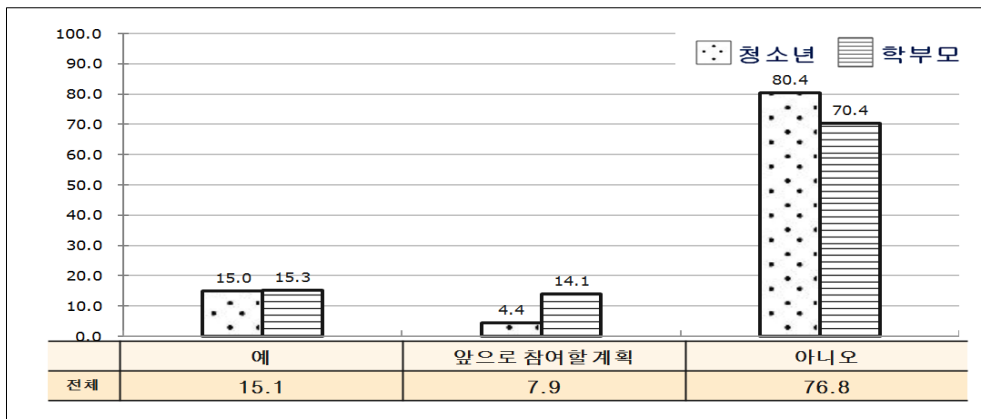
[그림 I -9]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청소년: ‘그냥 충분히 쉬고 싶어서’(62.4%),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38.9%), ‘가족과 함께 활동하고 싶어서’(28.9%),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22.7%), ‘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6.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가족과 함께 활동하고 싶어서’(40.6%)비율이,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17.2%)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그냥 충분히 쉬게 하고 싶어서’(46.3%), ‘가족과 함께 활동하게 하고 싶어서’(45.3%), ‘참여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25.5%),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22.4%), ‘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8.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가족과 함께 활동하고 싶어서’(58.2%),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33.3%), ‘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18.2%)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참여수준

①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참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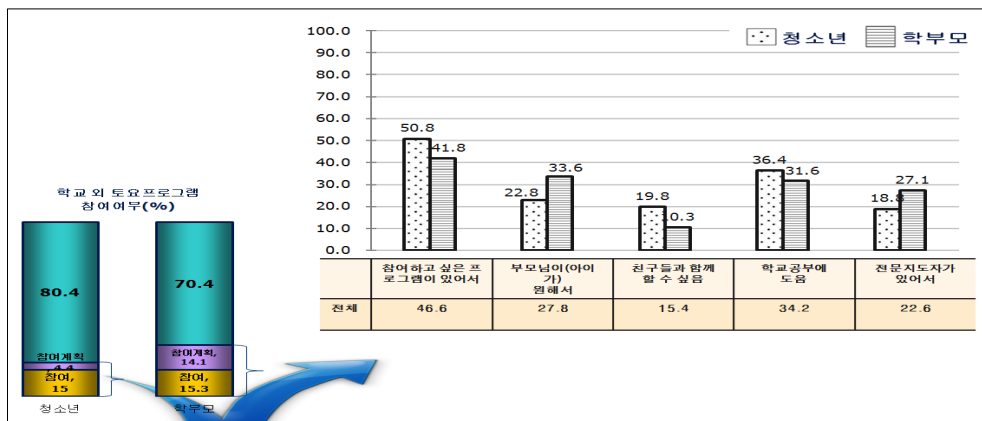
[그림 I -10] 학교 밖 다른 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참여 여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5정도(19.4%)의 청소년이 참여(15.0%) 또는 참여계획(4.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1/3정도(29.4%)가 자녀를 참여(15.3%) 또는 참여시킬 계획(14.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말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참여 이유(중복응답)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50.8%)과 학부모(41.8%) 모두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II]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참여하고 싶은 이유(중복응답)

청소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50.8%),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6.4%), ‘부모님이 권유하셔서’(22.8%),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19.8%), ‘전문지도자가 있어서’(18.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23.7%), 고등학생은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53.4%)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참여 이유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청소년:**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참여하고(15.0%)있는 청소년들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46.9%),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7.7%), ‘부모님이 권유하셔서’(26.1%), ‘전문지도자가 있어서’(20.0%),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18.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계획청소년:**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참여계획(4.4%)이 있는 청소년들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63.9%),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2.0%),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23.1%), '전문지도자가 있어서'(15.0%), '부모님이 권유하셔서'(11.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 '참여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41.8%), '자녀가 원해서'(33.6%),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1.6%), '전문지도자가 있어서'(2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12.3%), 중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12.8%),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51.5%)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참여학부모:**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자녀가 참여하고(15.3%)있는 학부모들은 '아이가 원해서/참여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41.0%),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4.4%), '전문지도자가 있어서'(27.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참여계획학부모:**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시킬 계획(14.1%)이 있는 학부모들은 '참여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42.6%),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8.7%), '전문지도자가 있어서'(26.8%), '아이가 원해서'(25.7%),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13.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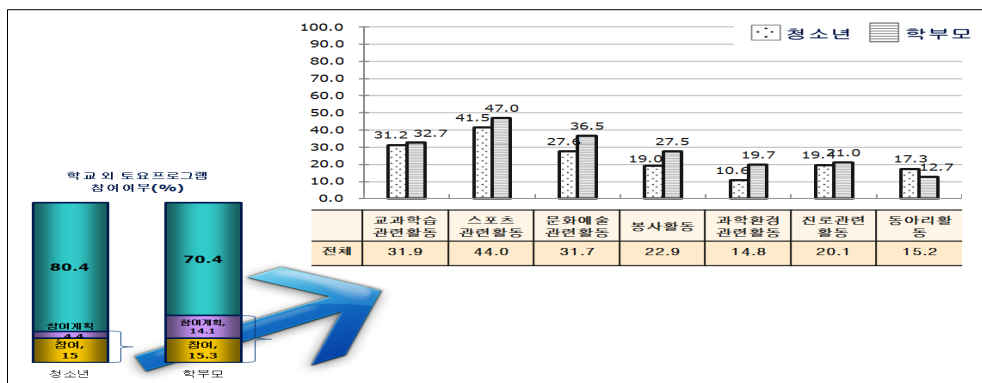
③ 학교 밖 운영 참여 주말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중 참여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41.5%)과 학부모(47.0%) 모두 '스포츠관련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스포츠관련활동'(41.5%), '교과학습관련활동'(31.2%), '문화예술관련활동'(27.6%), '진로관련활동'(19.4%), '봉사활동'(19.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교과학습관련활동'(47.9%)과 '봉사활동'(34.5%), 초등학생은 '스포츠관련활동'(52.1%), 중학생은 '동아리활동'(23.6%)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참여 선호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청소년:**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참여하고(15.0%)있는 청소년들은 '스포츠관련활동'(42.1%), '교과학습관련활동'(36.1%), '문화예술관련활동'(22.4%), '동아리활동'(16.0%), '봉사활동'(15.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계획청소년:**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참여계획(4.4%)이 있는 청소년들은 '문화예술관련활동'(42.2%), '스포츠관련활동'(39.5%), '진로관련활동'(33.3%), '봉사활동'(29.9%), '동아리활동'(21.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 '스포츠관련활동'(47.0%), '문화예술관련활동'(36.5%), '교과학습관련활동'(32.7%), '봉

사활동'(27.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과학습 관련활동'(47.4%),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문화예술관련활동'(46.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참여학부모:**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자녀가 참여하고(15.3%)있는 학부모들은 '스포츠관련활동'(44.1%), '교과학습관련활동'(39.6%), '문화예술관련활동'(36.1%), '봉사활동'(20.5%), '교학환경관련활동'(20.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참여계획학부모:**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시킬계획(14.1%)이 있는 학부모들은 '스포츠관련활동'(50.2%), '문화예술 관련활동'(37.0%), '봉사활동'(35.1%), '교과학습관련활동'(25.3%), '진로관련활동'(22.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I-12] 참여 또는 참여하고 싶은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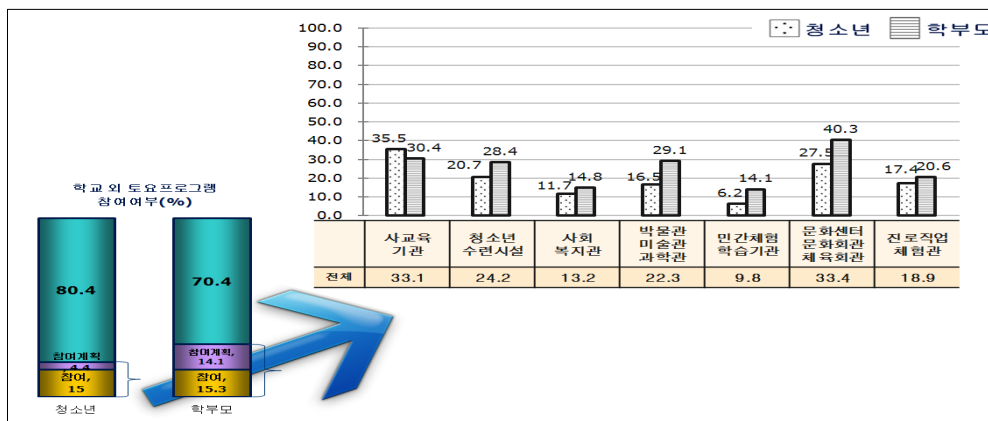
④ 학교 밖 운영 참여 주말프로그램 운영기관(중복응답)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참여 중인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 운영기관(시설)의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은 '학원 등 사교육기관'(35.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런 결과는 참여 중인 기관은 '학원 등 사교육기관'(40.3%)이, 참여하고 싶은 기관은 '문화센터(회관)·체육회관'(38.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학부모는 '문화센터(회관)·체육회관'(40.3%)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학원 등 사교육기관'(35.5%), '문화센터(회관)·체육회관'(27.5%) '청소년수련시설'(20.7%), '진로직업체험관'(17.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학원 등 사교육기관'(49.2%), 중학생은 '청소년수련시설'(25.7%), 초등학생은 '문화센터(회관)·체육회관'(34.7%)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청소년:** 학교 밖 주말프로

그림에 참여하고(15.0%)있는 청소년들은 ‘학원 등 사교육기관’(40.3%), ‘문화센터(회관)·체육회관’(24.4%) ‘청소년수련시설’(19.6%), ‘박물관·미술관·과학관’(13.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계획청소년**: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참여계획(4.4%)이 있는 청소년들은 ‘문화센터(회관)·체육회관’(38.1%), ‘진로직업체험관’(35.4%) ‘박물관·미술관·과학관’(28.6%), ‘청소년수련시설’(24.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 ‘문화센터(회관)·체육회관’(40.3%), ‘학원 등 사교육기관’(30.4%), ‘박물관·미술관·과학관’(29.1%), ‘청소년수련시설’(28.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원 등 사교육기관’(46.2%), 중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청소년수련시설’(34.1%)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참여학부모**: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자녀가 참여하고(15.3%)있는 학부모들은 ‘학원 등 사교육기관’(39.9%), ‘문화센터(회관)·체육회관’(33.3%), ‘청소년수련시설’(28.5%), ‘박물관·미술관·과학관’(22.9%), ‘진로직업체험관’(17.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참여계획학부모**: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시킬계획(14.1%)이 있는 학부모들은 ‘문화센터(회관)·체육회관’(47.9%), ‘박물관·미술관·과학관’(35.8%), ‘청소년수련시설’(28.3%), ‘진로직업체험관’(24.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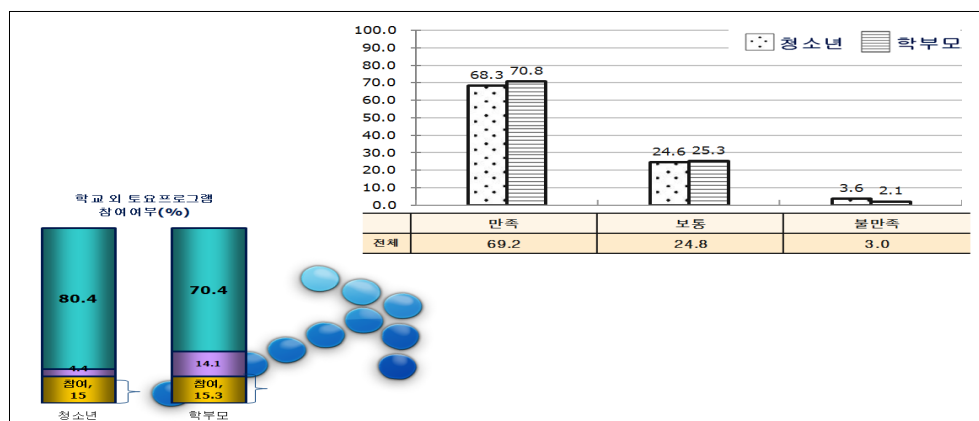


[그림 I-13] 참여 또는 참여하고 싶은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종류(중복응답)

⑤ 학교 밖 운영 참여 주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수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밖 운영 토요일프로그램에 대해 2/3이상의 청소년

(68.3%)과 학부모(70.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초등학교(75.4%), 중학교(67.1%), 고등학교(62.3%) 순으로, 학부모는 중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8.2%),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8.0%),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55.4%) 순으로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14] 학교 밖 운영 참여 주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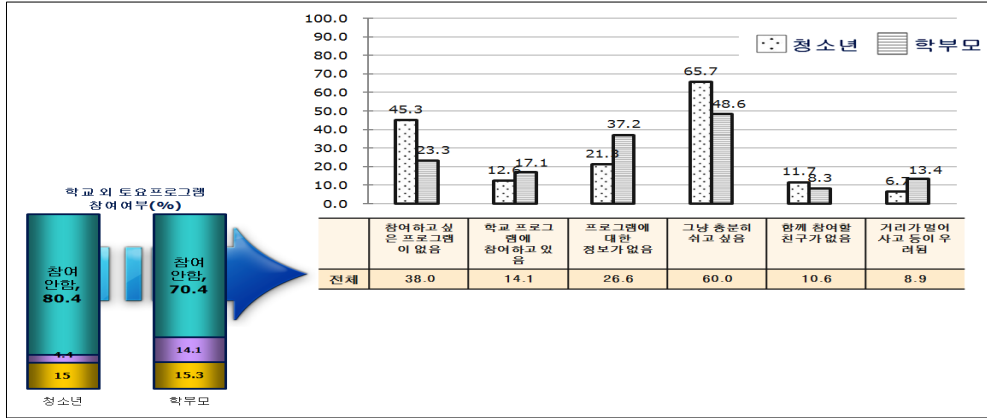
⑥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불참 이유(중복응답)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에 참여하지(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65.7%)과 학부모(48.6%) 모두 ‘그냥 충분히 쉬고(쉬게 하고) 싶어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그냥 충분히 쉬고 싶어서’(65.7%),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45.3%),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1.3%),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12.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30.3%) 초등학생은 ‘거리가 멀어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어서’(9.2%)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그냥 충분히 쉬게 하고 싶어서’(48.6%),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37.2%), ‘참여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23.3%),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1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41.8%),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거리가 멀어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어서’(20.1%)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15]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불참 이유(중복응답)

3)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시간이용 실태

(1)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인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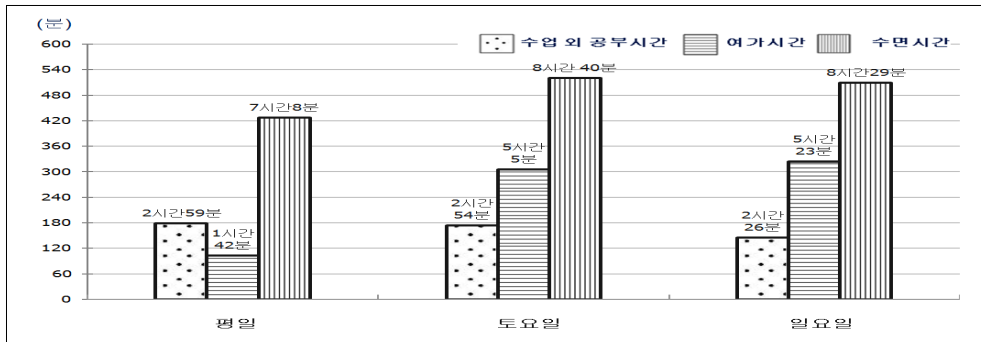
①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평균 공부 · 여가 · 수면시간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에 대해 학교수업시간을 제외한 공부시간, 여가시간, 수면시간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부시간: 학교수업시간을 제외한 평균 공부시간은 평일 2시간 59분, 토요일 2시간 54분, 일요일 2시간 2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중학교(3시간 7분), 고등학교(2시간 58분), 초등학교(2시간 50분) 순으로, 토요일에는 고등학교(4시간 13분), 중학교(2시간 44분), 초등학교(1시간 38분) 순으로, 일요일에는 고등학교(3시간 51분), 중학교(2시간 8분), 초등학교(1시간 11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1시간 42분, 토요일 5시간 5분, 일요일 5시간 2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중학교(1시간 56분), 초등학교(1시간 52분), 고등학교(1시간 22분) 순으로, 토요일에는 중학교(5시간 33분), 초등학교(5시간 10분), 고등학교(4시간 33분) 순으로, 일요일에는 중학교(5시간 53분), 초등학교(5시간 27분), 고등학교(4시간 52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 평균 수면시간은 평일 7시간 8분, 토요일 8시간 40분, 일요일 8시간 29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초등학교(8시간 13분), 중학교(7시간 28분), 고등학교(6시간 2분) 순으로, 토요일에는 초등학교(9시간 7분), 중학교(8시간 51분), 고등학교(8시간 5분) 순으로, 일요일에는 초등학교(8시간 59분), 중학교(8시간 40분), 고등학교(7시간 52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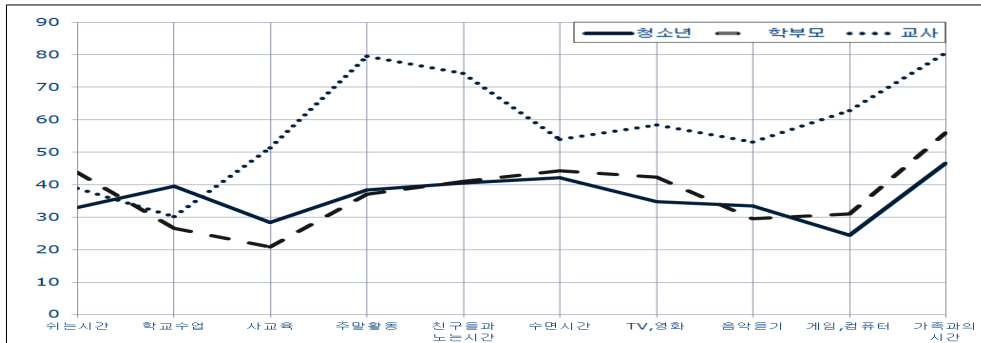
[그림 I -16]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평균 공부·여가·수면시간

②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전후 청소년 생활시간 비교에 대한 인식수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과 이후의 생활시간 비교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쉬는 시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학부모(43.7%), 교사(38.9%), 청소년(32.9%)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수업시간:** 학교수업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청소년(39.5%), 교사(30.1%), 학부모(26.6%)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 밖 공부시간:** 학교 밖 공부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51.3%), 청소년(28.3%), 학부모(20.8%)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말활동참여시간:** 주말활동 참여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79.6%), 청소년(38.4%), 학부모(37.1%)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74.3%), 학부모(40.9%), 청소년(40.5%)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54.0%), 학부모(44.2%), 청소년(42.1%)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TV·영화 보는 시간:** TV·영화 보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58.4%), 학부모(42.3%), 청소년(34.7%)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음악 듣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53.1%), 청소년(33.4%),

학부모(29.5%)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임이나 컴퓨터 하는 시간**: 게임이나 컴퓨터 하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62.8%), 학부모(31.0%), 청소년(24.4%)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80.5%), 학부모(55.9%), 청소년(46.5%)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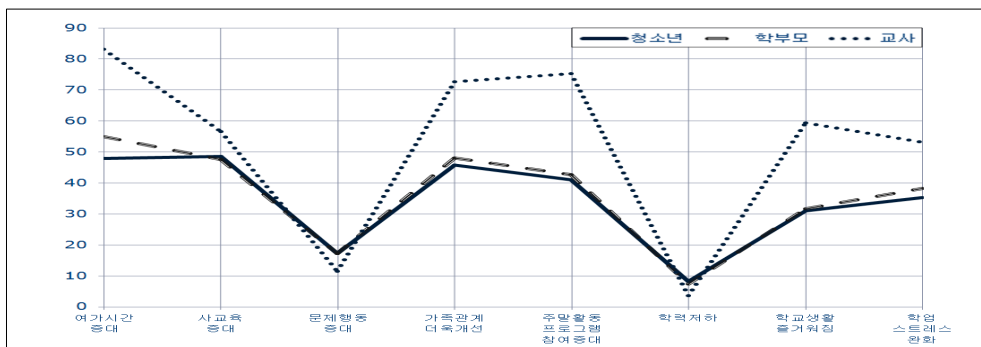


[그림 I -17]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전후 청소년 생활시간 비교에 대한 인식수준

③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환경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수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시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에 대해 교사(83.2%), 학부모(54.9%), 청소년(47.8%) 순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받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들의 사교육 받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에 대해 교사(56.6%), 청소년(48.5%), 학부모(47.6%) 순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에 대해 청소년/학부모(17.2%), 교사(11.5%) 순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가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들의 가족관계가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에 대해 교사(72.6%), 학부모(48.1%), 청소년(45.8%) 순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활동프로그램 참여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들의 주말활동 프로그램 참여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에 대해 교사(75.2%), 학부모(42.6%), 청소년(41.0%) 순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들의 학력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에 대해 청소년(8.2%), 학부모

(7.4%), 교사(3.5%) 모두 낮은 비율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게 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게 될 것이다’에 대해 교사(59.3%), 학부모(31.6%), 청소년(30.9%) 순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들의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에 대해 교사(53.1%), 학부모(38.2%), 청소년(35.3%) 순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18]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환경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수준

(2)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활동 실태 및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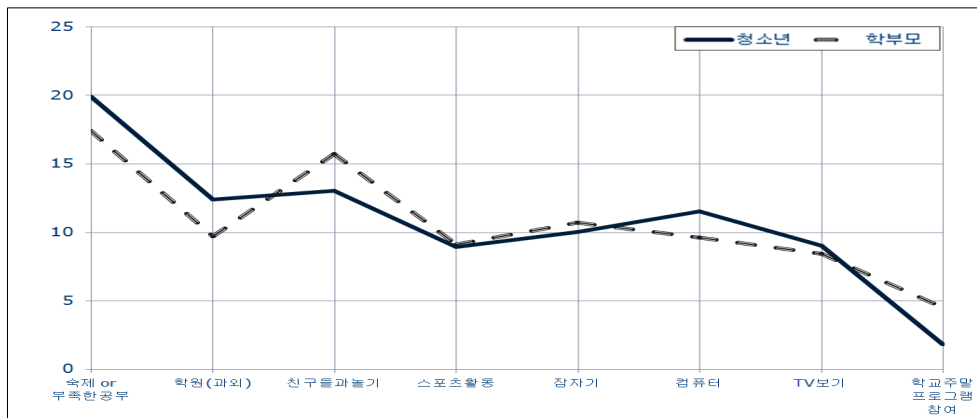
①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1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참여(1.8%)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참여(0.3%)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19.9%), ‘친구들과 놀기’(13.0%), ‘학원(과외)수업받기’(12.4%), ‘컴퓨터(인터넷·게임)하기’(11.5%), ‘잠자기’(10.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스포츠활동’(남: 15.5% 여: 2.3%)과 ‘컴퓨터(인터넷·게임)하기’(남: 17.2% 여: 5.8%), 여학생은 ‘잠자기’(남: 7.4% 여: 12.7%)와 ‘TV보기’(남: 6.2% 여: 11.9%)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17.4%), ‘친구들과 놀기’(15.7%), ‘잠자기’(10.7%), ‘학원(과외)

수업받기'(9.7%), '컴퓨터(인터넷·게임)하기'(9.6%) 순으로 자녀들이 주말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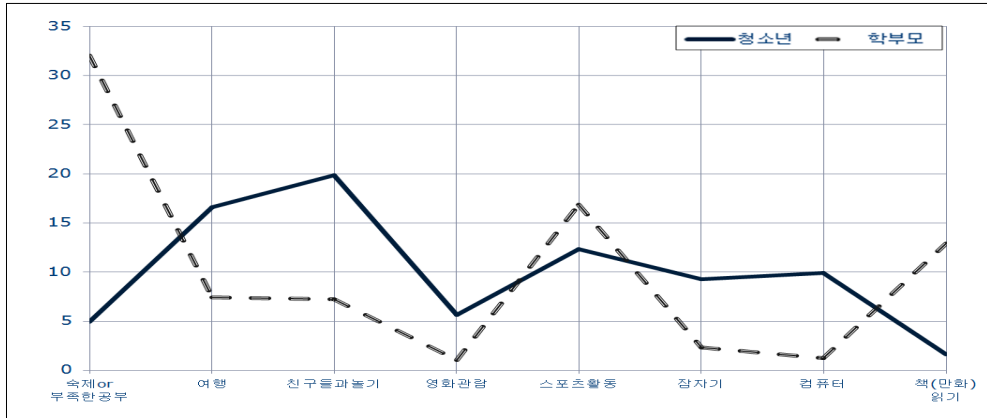
[그림 I -19]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

②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 활동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하길 바라는) 활동으로 청소년은 ‘친구들과 놀기’(19.8%)를, 학부모들은 ‘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32.0%)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나 학교(2.7%)나 청소년수련시설(3.6%)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비율은 청소년(학교:0.7% 청소년수련시설: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친구들과 놀기’(19.8%), ‘여행’(16.6%), ‘스포츠활동’(12.3%), ‘컴퓨터(인터넷·게임)하기’(9.9%), ‘잠자기’(9.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스포츠활동’(남: 19.0% 여: 5.4%)과 ‘컴퓨터(인터넷·게임)하기’(남: 15.7% 여: 3.9%)활동에서, 여학생은 ‘쇼핑하기’(남: 1.2% 여: 6.2%), ‘친구들과 놀기’(남: 17.4% 여: 22.2%), ‘여행’(남: 14.5% 여: 18.6%), ‘잠자기’(남: 7.4% 여: 11.0%)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32.0%), ‘스포츠활동’(16.8%), ‘책만화읽기’(12.9%), ‘여행’(7.4%), ‘친구들과 놀기’(7.2%), ‘청소년수련시설 주말프로그램 참여’(3.6%) 순으로 자녀들이 주말 여가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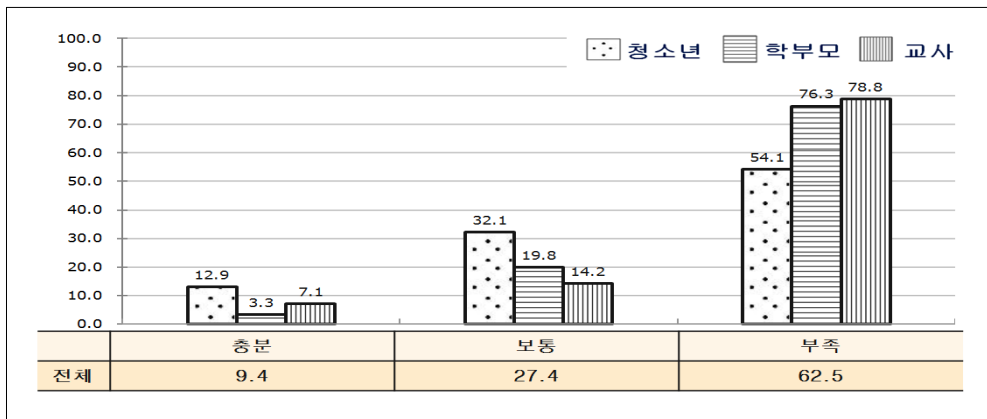


[그림 I -20]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 활동

4) 지역사회 내 활동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수준

(1) 지역사회 내 활동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수준

① 지역사회 내 활동시설에 대한 만족도



[그림 I -21]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한 충분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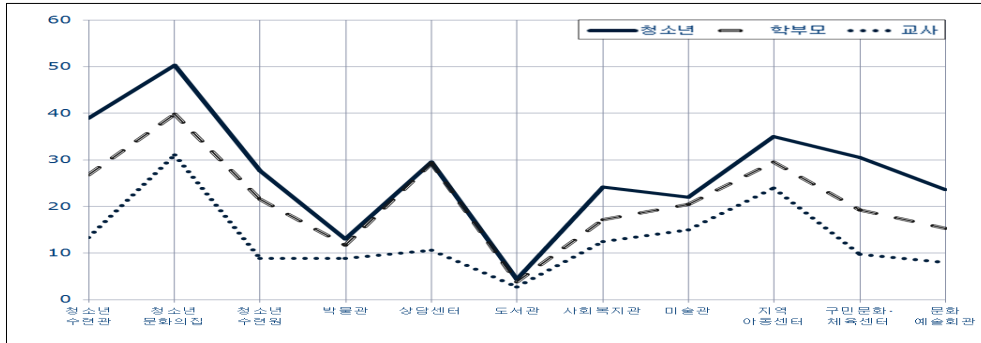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시설에 대해 2/3정도(62.5%)가 부족하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보다 교사나 학부모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78.8% 학부모:76.3% 청소년: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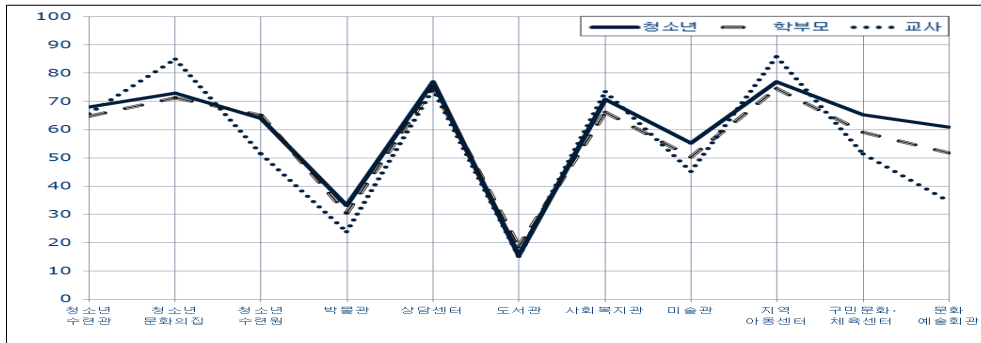
② 지역사회 내 활동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수준

지역사회 내 활동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 1/3정도(34.1%)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16.1%만 ‘잘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정도(66.8%)는 전혀 이용 경험이 없고 14.9%만 ‘1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문화의집:** 과반수정도(46.2%)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10.4%만 ‘잘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이상(72.6%)이 전혀 이용 경험이 없고 7.6%만 ‘1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원:** 1/4정도(25.1%)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20.8%만이 ‘잘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정도(64.0%)가 전혀 이용 경험이 없고 18.4%만 ‘1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12.5%만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과반수이상(52.3%)이 ‘잘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정도(32.0%)는 전혀 이용 경험이 없고 과반수정도(47.0%)가 ‘1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센터:** 1/3정도(29.0%)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17.7%만이 ‘잘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4정도(76.2%)는 전혀 이용 경험이 없고 6.4%만 ‘1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4.1%만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3/4정도(71.1%)가 ‘잘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정도(16.6%)만 전혀 이용 경험이 없고 24.9%는 ‘1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 1/5이상(21.4%)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26.6%만 ‘잘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정도(69.0%)는 전혀 이용 경험이 없고 11.3%만 ‘1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1/5이상(21.3%)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37.2%만 ‘잘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수정도(53.2%)는 전혀 이용 경험이 없고 28.2%만 ‘1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1/3정도(32.9%)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15.8%만이 ‘잘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4정도(76.2%)는 전혀 이용 경험이 없고 5.4%만 ‘1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민문화&체육센터:** 1/4정도(26.1%)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25.5%만이 ‘잘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정도(62.8%)는 전혀 이용 경험이 없고 14.4%만 ‘1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회관:** 1/5정도(20.3%)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31.2%만이 ‘잘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수이상(57.2%)이 전혀 이용 경험이 없고 23.7%만 ‘1년에 1~2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22]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한 인지도(해당시설을 알지 못하는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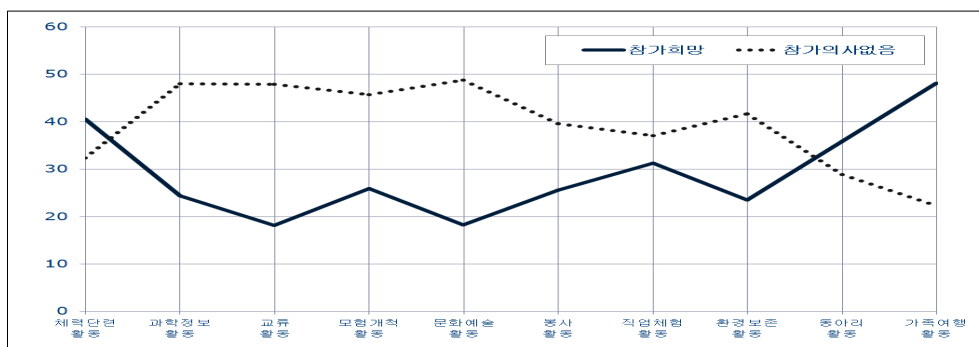


[그림 I -23]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한 이용수준(전혀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

(2) 지역사회 내 활동시설 운영 주말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지역사회 내 활동시설에서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참여희망이 높은 활동영역은 가족여행활동(48.1%), 체력단련활동(40.6%), 동아리활동(35.8%), 모험개척활동(25.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단련활동**: 과반수정도(40.6%)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1/3정도(32.3%)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정보활동: 1/4정도(24.4%)만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과반수정도(48.0%)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활동: 1/5정도(18.1%)만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과반수정도(47.9%)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험개척활동: 1/4정도(25.9%)만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과반수정도(45.7%)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활동: 1/5정도(18.2%)만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과반수정도(48.8%)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1/4정도(25.6%)만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1/3정도(39.6%)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체험활동: 1/3정도(31.2%)만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1/3이상(37.1%)이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존활동: 1/4정도(23.5%)만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과반수정도(41.6%)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 1/3이상(35.8%)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28.9%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행활동: 과반수정도(48.1%)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22.3%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24] 지역사회 내 활동시설 운영 주말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5)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활동 운영관련 요구

(1)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활동 운영방식 관련 요구

① 주말활동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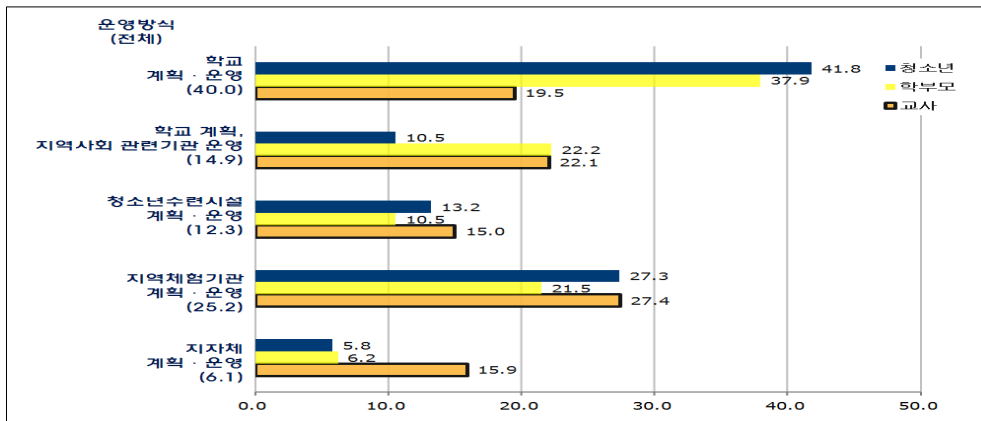
주5일수업제가 전면실시된 후 주말활동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1/3이상(40.0%)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지역체험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25.2%),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의 관련기관(시설)에서 운영’(14.9%),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계획하고 운영’(12.3%),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계획하고 운영’(6.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41.8%),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지역체험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27.3%),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계획하고 운

영'(13.2%) 순으로 주말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37.9%),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의 관련기관(시설)에서 운영'(22.2%),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지역체험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21.5%) 순으로 주말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사: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지역체험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27.4%),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의 관련기관(시설)에서 운영'(22.1%),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19.5%) 순으로 주말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25]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이후 선호하는 주말활동 운영방식

② 주말활동을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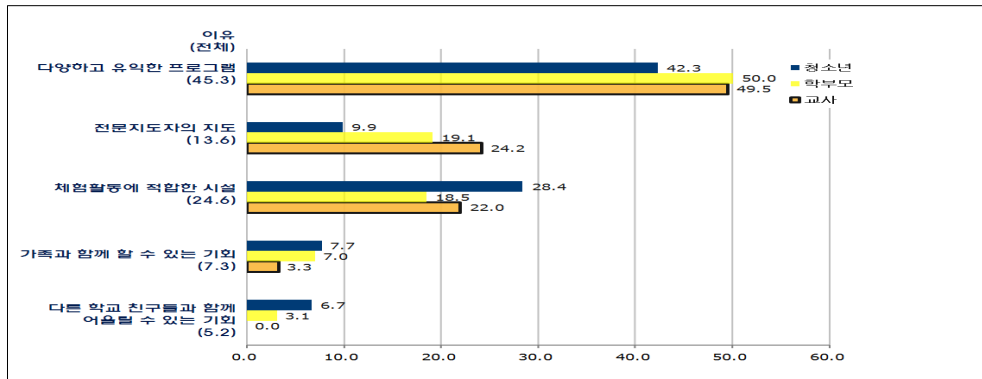
주5일수업제가 전면실시된 후 주말활동을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3,11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과반수정도(45.3%)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체험활동 하기에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24.6%),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13.6%)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에 비해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기 때문'(42.3%), '체험활동 하기에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28.4%),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9.9%)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기 때문'(50.0%),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19.1%), ‘체험활동 하기에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18.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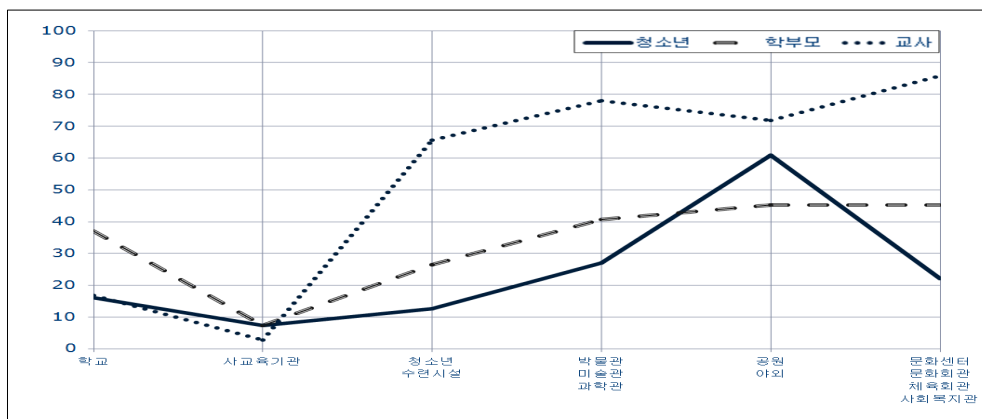
교 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기 때문’(49.5%),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24.2%), ‘체험활동 하기에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2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 -26] 주말활동을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

③ 주말활동 운영장소에 대한 선호도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된 후 주말활동을 하고 싶은 곳으로는 ‘공원·야외’(55.5%), ‘박물관·미술관과 학관’(32.9%), ‘문화센터·체육회관’(31.5%), ‘학교’(23.3%), ‘청소년수련시설’(18.6%), ‘학원 등 사교육 기관’(7.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 -27] 주말활동 운영장소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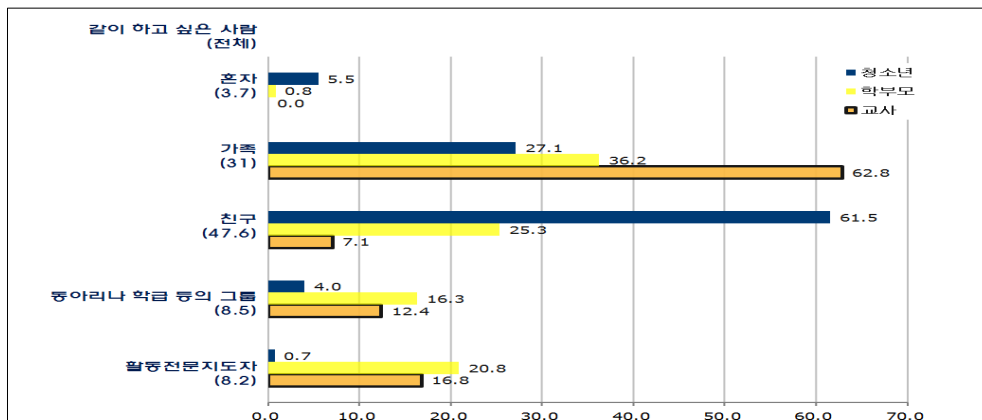
청소년: 공원·야외(60.8%), 박물관·미술관·과학관(27.0%), 문화센터·체육회관(22.0%), 학교(15.9%), 청소년수련시설(12.6%), 학원 등 사교육기관(7.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공원·야외/문화센터·체육회관(45.1%), 박물관·미술관·과학관(40.6%), 학교(36.9%), 청소년수련시설(26.4%), 학원 등 사교육기관(7.2%) 순으로 나타났다.

교 사: 문화센터·체육회관(85.8%), 박물관·미술관·과학관(77.9%), 공원·야외(71.7%), 청소년수련시설(65.5%), 학교(16.8%), 학원 등 사교육기관(2.7%) 순으로 나타났다.

④ 주말활동 동행인물에 대한 선호도

주5일수업제가 전면실시된 후 주말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은 ‘친구’(47.6%), ‘가족’(31.0%), ‘동아리나 학급 등의 그룹’(8.5%), ‘활동전문지도자’(8.2%), ‘혼자’(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학부모, 교사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I -28] 주말활동 동행인물에 대한 선호도

청소년: 친구(61.5%), 가족(27.1%), 혼자(5.5%), 동아리나 학급 등의 그룹(4.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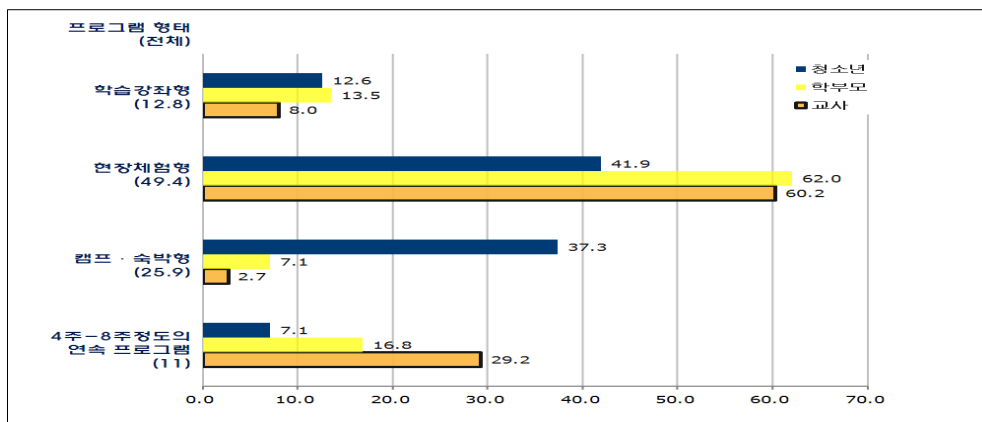
학부모: 가족(36.2%), 친구(25.3%), 활동전문지도자(20.8%), 동아리나 학급 등의 그룹(16.3%) 순으로 자녀들이 주말활동을 함께 했으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사: 가족(62.8%), 활동전문지도자(16.8%), 동아리나 학급 등의 그룹(12.4%), 친구(7.1%) 순으로 청소년들이 주말활동을 함께 했으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주말활동 유형에 대한 선호도

주말활동 유형은 1일현장체험형(49.4%), 캠프·숙박형(25.9%), 학습강좌형(12.8%), 4주에서 8주 정도의 연속(패키지)프로그램형(11.0%)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간에 캠프·숙박형과 패키지프로그램형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1일현장체험형(41.9%), 캠프·숙박형(37.3%), 학습강좌형(12.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일현장체험형(62.0%), 4주에서 8주 정도의 연속(패키지)프로그램형(16.8%), 학습강좌형(13.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일현장체험형(60.2%), 4주에서 8주 정도의 연속(패키지)프로그램형(29.2%), 학습강좌형(8.0%)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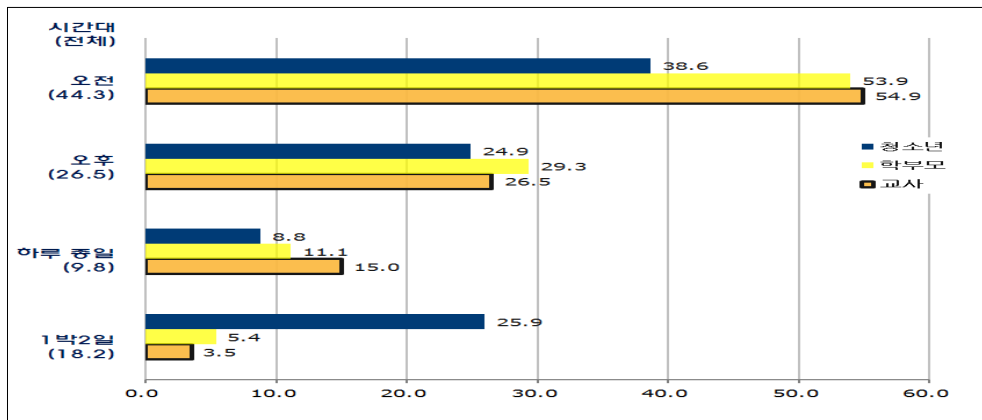


[그림 I -29] 주말활동 유형에 대한 선호도

⑥ 주말활동 시간대에 대한 선호도

주말활동은 과반수정도(44.3%)가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후(26.5%), 1박2일(18.2%), 하루종일(9.8%)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은 학부모와 교사에게 비해 1박2일 선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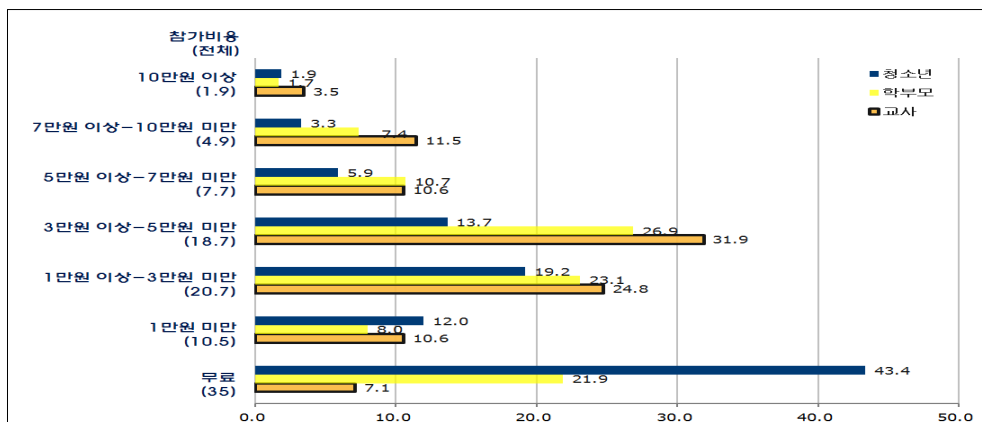
청소년: 오전(38.6%), 1박2일(25.9%), 오후(24.9%), 하루종일(8.8%)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오전(53.9%), 오후(29.3%), 하루종일(11.1%), 1박2일(5.4%)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오전(54.9%), 오후(26.5%), 하루종일(15.0%), 1박2일(3.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30] 주말활동 시간대에 대한 선호도

⑦ 주말활동 참가비용

주말활동 한달 참가비용으로 적당한 액수는 1/3이상(35.0%)이 무료, 그 다음으로 10,000원 이상~30,000원 미만(20.7%), 30,000원 이상~50,000원 미만(18.7%), 10,000원 미만(10.5%) 순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와 교사는 30,000원 이상~50,000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31] 적정 주말활동 프로그램 참가비용

청소년: 무료(43.4%), 10,000원 이상~30,000원 미만(19.2%), 30,000원 이상~50,000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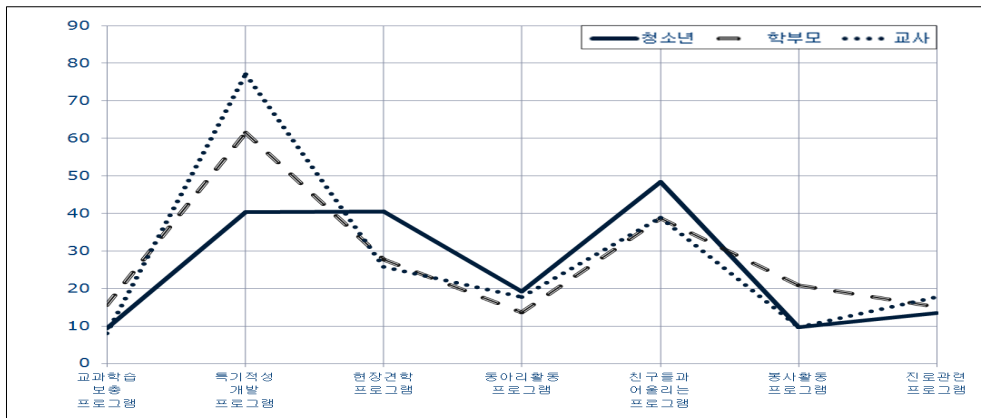
(13.7%), 10,000원 미만(12.0%) 순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30,000원 이상~50,000원 미만(26.9%), 10,000원 이상~30,000원 미만(23.1%), 무료(21.9%), 50,000원 이상~70,000원 미만(10.7%) 순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사: 30,000원 이상~50,000원 미만(31.9%), 10,000원 이상~30,000원 미만(24.8%), 7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11.5%), 50,000원 이상~70,000원 미만/10,000원 미만(10.6%) 순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해 주기 원하는 주말활동 프로그램(중복응답)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주말활동 프로그램은 ‘특기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48.5%), ‘친구들과 어울리는 운동이나 놀이프로그램’(44.8%), ‘여행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35.6%), ‘동아리활동 프로그램’(17.1%), ‘진로관련 프로그램’(14.0%), ‘봉사활동 프로그램’(13.6%), ‘교과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11.5%)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은 학부모와 교사에 비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운동이나 놀이프로그램 선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 -32]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해 주기 원하는 주말활동 프로그램(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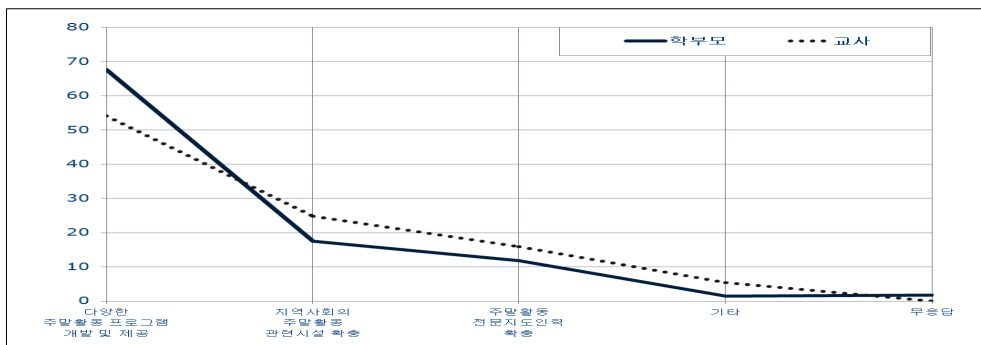
청소년: 친구들과 어울리는 운동이나 놀이프로그램(48.4%), 여행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40.5%), 특기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40.3%), 동아리활동 프로그램(19.1%), 진로관련 프로그램(13.4%), 봉사활동 프로그램(9.6%), 교과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9.3%)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특기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61.5%), 친구들과 어울리는 운동이나 놀이프로그램(38.7%), 여행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27.6%), 봉사활동 프로그램(20.8%), 교과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15.6%), 진로관련 프로그램(15.0%), 동아리활동 프로그램(13.6%)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사: 특기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77.0%), 친구들과 어울리는 운동이나 놀이프로그램(38.9%), 여행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25.7%), 진로관련 프로그램/동아리활동 프로그램(17.7%) 봉사활동 프로그램(9.7%), 교과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8.0%)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⑨ 주말을 유용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청소년들이 주말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2/3(66.9%)는 '다양한 주말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의 주말활동 관련 시설 확충'(18.0%), '주말활동 전문 지도인력 확충'(11.9%)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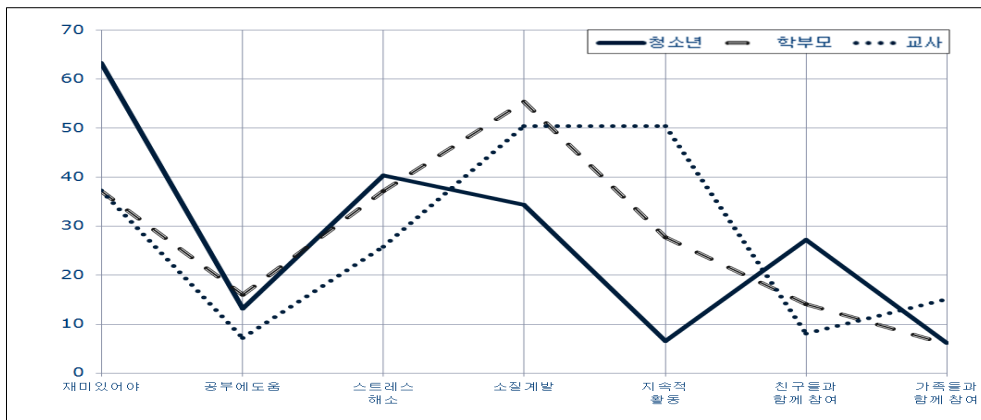
[그림 I-33] 주말을 유용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원

학부모는 '다양한 주말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67.6%), '지역사회의 주말활동 관련 시설 확충'(17.5%), '주말활동 전문 지도인력 확충'(11.7%) 순으로, **교사**는 '다양한 주말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54.0%), '지역사회의 주말활동 관련 시설 확충'(24.8%), '주말활동 전문 지도인력 확충'(15.9%)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활동프로그램 선택요인 및 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

① 주말활동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요인(중복응답)

주5일수업제가 전면실시된 후 주말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재미있어야 한다’(53.5%),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2.2%),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38.8%),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22.1%),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14.9%),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14.0%),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6.2%) 순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청소년, 학부모, 교사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 -34] 주말활동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요인(중복응답)

청소년: 재미있어야 한다(63.3%),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40.3%),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4.3%),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27.1%),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13.1%),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6.5%),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6.1%)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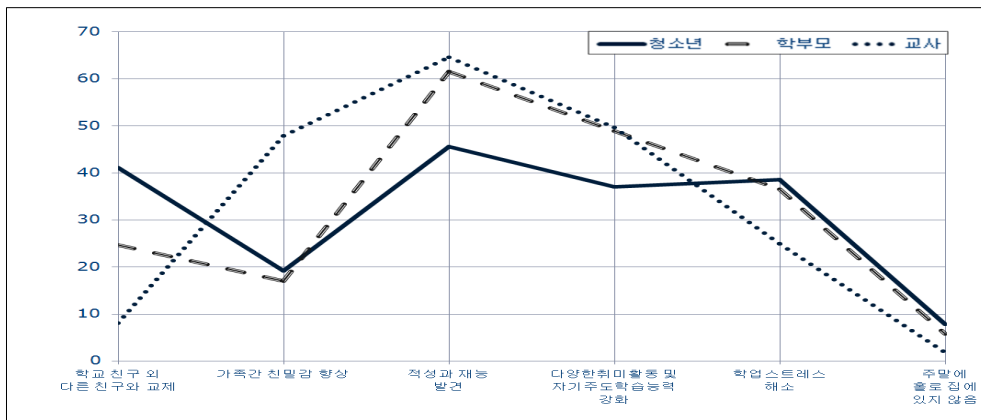
학부모: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55.3%), 재미있어야 한다/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37.1%),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27.6%),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15.9%),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14.0%),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5.8%)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50.4%),

재미있어야 한다(37.2%),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25.7%),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15.0%),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8.0%),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7.1%)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주말활동 참여 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주5일수업제가 전면실시된 후 주말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적성 및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51.6%), ‘다양한 취미가 생기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강화될 것이다’(41.5%),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37.5%), ‘학교 친구 외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이다’(34.6%),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가족 간에 친밀감이 생길 것이다’(18.9%), ‘주말에 혼자 집에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6.9%) 순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청소년, 학부모, 교사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 -35] 주말활동 참여 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청소년: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적성 및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45.5%), 학교 친구 외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이다(41.1%),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38.5%), 다양한 취미가 생기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강화될 것이다(37.0%),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가족 간에 친밀감이 생길 것이다(19.1%), 주말에 혼자 집에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7.8%)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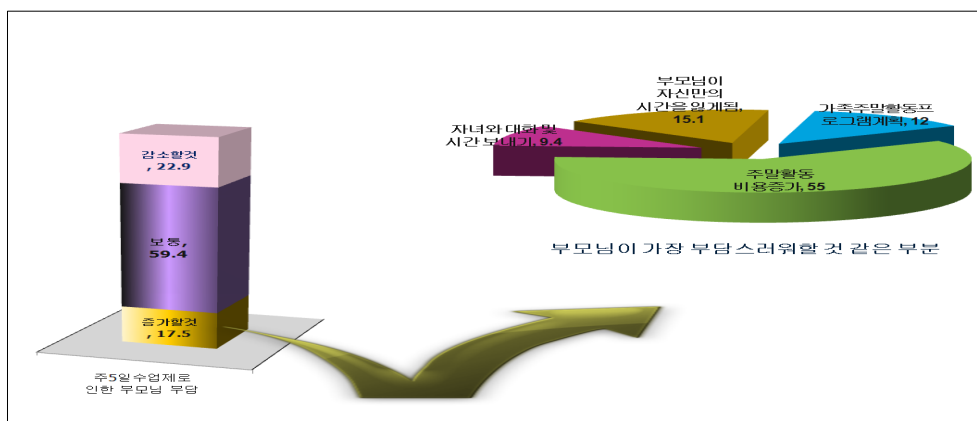
학부모: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적성 및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61.5%),

다양한 취미가 생기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강화될 것이다(48.9%),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36.4%), 학교 친구 외에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을 것이다(24.6%),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가족 간에 친밀감이 생길 것이다(16.9%), 주말에 혼자 집에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5.7%)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사: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적성 및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64.6%), 다양한 취미가 생기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강화될 것이다(49.6%),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가족 간에 친밀감이 생길 것이다(47.8%),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24.8%), 학교 친구 외에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을 것이다(8.0%), 주말에 혼자 집에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1.8%)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주말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부담감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1/5정도(17.5%)만이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으로써 주말활동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초:15.6% 중:17.5% 고:19.4%).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과반수정도(55.0%)가 ‘주말활동을 위한 비용의 증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자신만의 시간을 잃게 되는 것(15.1%), 가족 주말활동 프로그램 계획(12%), 자녀와의 대화 및 시간 보내기(9.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 -36] 주말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부담감에 대한 인식

주제발표 1



학교에서의 주5일수업제에 따른 주말활동 운영 현황

김 영 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학교에서의 주5일수업제에 따른 주말활동 운영 현황

들어가는 말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다. 염려와 걱정애 비해 큰 혼란 없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큰 틀에서 중앙 정부, 시도 교육청, 자치 단체, 학교 등 관의 적극적인 자기 역할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활동이 비교적 잘 어우러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선불리 판단하기에는 너무 시행 기간이 짧아 누구도 단정적인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른들의 불안 혹은 불편함에 비해 학생들이 느끼는 편안함, 즐거움은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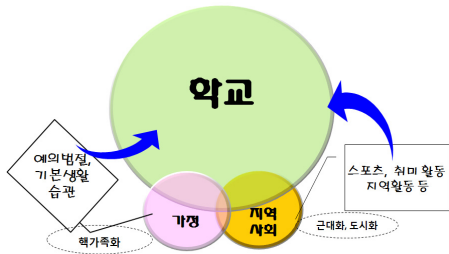
1. 주5일수업제 도입배경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도입의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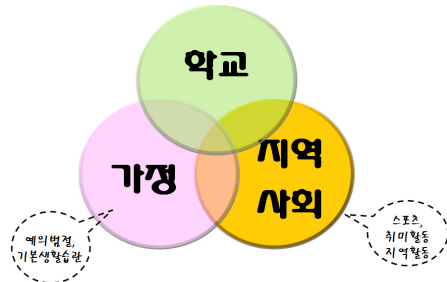
○ 주5일수업제 추진 배경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 그리고 올바른 인간성을 갖춘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 주5일수업제는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을 비롯한 사회·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휴일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른 품성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 비대외 연상



교육공동체 시스템 구축



[그림 II-1] 교육공동체 시스템 구축

2) 교육과정 운영 현황

서울시교육청 소재 총 1,312개 학교 중 1개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100%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은 어찌 되었든 더 이상 논의를 길게 이어갈 필요가 없게 정리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2009개정 교육과정이 주5일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연간수업일수만 줄어들고 주당수업시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하루 수업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공히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7교시 수업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되었다. 즉 토요일을 보장받기 위해 평일 생활 조건의 악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결국 주당 수업시수의 일부 감축을 위한 연간수업 일수의 부분 증대 즉 190일 수업을 195일 정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뉴얼을 통해 그 방법을 제시했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몇 차례 논의를 거쳐 7교시 수업 운영 일수를 가능하면 줄여달라는 안내를 현장에 내려 보냈다. 2012 서울시 소재 학교들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면 결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일수를 195일 내외로 정하고 주당 수업시수를 1시간 정도 감축하여 7교시 수업운영 일수를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줄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

2012 서울시교육청 소재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

		초						중						고					
주5일 수업제 시행학교	전체 학교	594						379						316					
	시행 학교	594						378						316					
연간 수업 일수		190 일		195 일				190 일		195 일				190 일		195 일			
		0		570				0		361				0		269			
주당 수업 시수		30(5-6) 27(3-4) 23(1-2)		29(5-6) 26(3-4) 22(1-2)				32		31				34		33			
7교시 수업운영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567	3	5	5	6	8	0	140	221	12	5	0	0	2	4	36	209	65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 편성의 자율권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주5일수업제에 기반한 것으로 우선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학교 재량권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2. 교육청 주관 운영 현황 및 지원정책

1) 지역연계 협력체계 구축

주5일수업제 도입 배경에서 거론했던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은 이제 단순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부터 시작하여 많은 부분을 단위학교가 지역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는 대부분 원칙적인 선언 수준이었지 실질적인 집행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는 고민의 정도가 다르고 접근 역시 다르다. 2011년 6월 교육부가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실시의 원칙을 밝힌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 개 주관 부서가 단독으로 계획서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몇 개 부서가 몇 차례 걸친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기본계획서를 구체화해 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짧은 기간 동안 기본계획서 마련을 마친 후 이어서 본격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 보는 광경들이 벌어졌다. 서울시청을 비롯해 구청 관계자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시설 관련자들을 모셔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마련되고 있던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계획을 모으고 정리하고 나누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청 담당자들 역시 지역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자치구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었다. 25개 자치구 관계자들을 모두 모시고 진행된 회의 자리에서 어떤 자치구가 더 협조적인지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어찌 되었든 실질적인 소통이 발생했고 그것이 서로를 이해해 가는 첫 번째 단계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2) 교사들의 인식 변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제한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주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것은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학교별 차이와 함께 학교 위치의 지역별 편차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청 차원의 지역연계협력의 실질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지만 분명한 변화의 흐름들이 감지된다. 부분적 주5일제에서 토요일은 학교 교육활동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었으나 전면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은 학교 교육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멀어지게 되었다. 이 낮은 상황을 처음 접한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안내되는 막연한 지역 연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즉 토요일이 수업하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과 주5일 근무를 처음 접한 자신들의 근무 조건을 돌아보면서 분명 다른 체계의 작동 필요성을 서서히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선언적 차원으로 알고 있었던 지역연계 활성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5일수업제 실시 초기에 학교는 분명한 자기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가정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가 역할을

한다고 해도 학교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일환으로서의 자기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주5일제수업 실시의 취지에 걸맞는 변화는 학교가 지역, 가정과 교육적 역할, 책임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토요 순환 근무를 하면서 교사와 학교는 지역사회를 구체적인 실체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서로 역할을 나누는 동반자적 관계의 발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3) 교육청의 지원

교육청은 학교로 보면 등대와 같은 곳이다. 무엇인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학교와 소통하기도 하지만 교육청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만 가지고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시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기관, 복지 기관 등과의 협력 틀 마련과 논의 진행, 학교 밖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의 체계적 안내 등이 이루어지면서 단위학교에서도 이제 지역, 가정과 함께하는 논의 틀 마련은 어려운 벽이 아니게 되었다. 특별히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기 역할 선언을 교육청과 학교는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적극 나서 175센터와 같은 접근을 하는 논의에 시교육청이 적극 함께 하고 있는 것, 청소년 기관,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토요 휴업일 프로그램들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 상황 등은 사실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의 변화인 것이다.

주5일수업제는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다. 비록 제한된 시간 즉 토요일이라는 시간만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여러 어른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가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큰 변화의 단초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4)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는 궁극적인 평가를 해줘야 할 접근이었다. 여러 가지 유의미한 교육적 장치들을 더 많이 만들어 제공해야겠다는 발상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 즉 자기 시간을 확보하게 해주는 접근은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토요일에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것 등은 분명 학교를 향해 의미있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의지를 밝히는 것, 예산 지원 이외 특별한 현장 지원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육과학기술부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에 대한 적극적 대처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여기에 더해 앞에서 제기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적극적 준비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에 따른 지원체제 구축

- ▷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력저하 방지를 위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모델 보급 및 컨설팅
- 지역사회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안내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주말학교’ 운영

- 주5일수업제 관련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원
- 토요일돌봄교실, 토요일방과후학교 운영 및 학교 시설 개방 확대
- 교육소외학생 지원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 토요일 문화예술 체험활동 및 교육기부 확대
- 서울스포츠의 날, 토요일 나눔봉사의 날 및 토요일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권장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운영

- 부서 간 주5일수업제 업무 통합 운영 추진 기구 상설 운영
- 주5일수업제 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원스톱 종합 자료 지원
- 학교 안전망 강화 : Wee 프로젝트 및 학교 보안관(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주5일수업제 시행추진단 구축·운영

- 지역사회 연계 주5일수업제 시행추진단 구성·운영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청, 청소년 수련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방 협력 활성화

*자료: 서울시교육청, 2012 주요업무계획.

3. 각 학교급의 주5일수업제에 따른 주말활동 운영 특징 및 문제점

1) 학교급에 따른 주말활동 운영 특징

초·중·고 공히 학교 시설을 이용한 활동,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활동, 가정 지원 활동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단계상 당연히 초등학교는 돌봄 교실, 교사 순환 근무를 통한 학생 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중심이 되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놀이, 스포츠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중학교는 돌봄 교실은 있으나 그 중심에는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연계 프로그램과 스포츠 데이, 학습 멘토링 등 자발성 혹은 활동성에 근거한 프로그램들이 자리 잡고 있다. 고등학교는 사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없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성화고등학교처럼 광역 단위에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곳은 토요일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다시 모인다는 것 자체가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이며 인문계 고등학교는 일부 취미 프로그램을 배치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습 중심의 주말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교과부의 학교급별 운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편성·운영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2 학교급별 토요일 프로그램 편성·운영 비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토요돌봄교실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토요일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교사의 등교학생 지도프로그램 청소년단체 토요일 체험활동 토요일 봉사 동아리활동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교육지원청지원토요일프로그램 지역사회시설 이용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스포츠데이 통합 프로그램 편성 자기주도학습과 멘토링 연계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연계 프로그램 봉사활동 연계 프로그램 체험학습프로그램(학부모와함께) 교육지원청차원의 토요일프로그램 지역사회/유관부처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스포츠데이 통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과 멘토링 연계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연계 프로그램 봉사활동 연계 프로그램 교육(지원)청 연계 프로그램 대학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시설 이용 프로그램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 현황 및 문제점

학교가 주5일제수업 운영과 관련한 토요 프로그램을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아니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어느 정도 일까?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아닌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력은 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아니 학교에서의 토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학교 교육이라는 맥락속에서 교육활동의 연장 선상에 있는 활동들로 내용을 국한하고 그 외 활동에 대한 것은 온전히 지역과 가정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질문 자체가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들은 학교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활동의 연장선(돌봄 교실, 동아리, 봉사 활동 등)에 있는 것들과 방과후 학교나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경험했던 것들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지역사회나 유관부처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내하는 변화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의 첫 단계에서 학교에 요구되는 사회적 압박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당장 평가 받고 있다. 점차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필요한 만큼 충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표 II-3 학교 토요프로그램 참가율 추이

	93만 5913명	128만 5573명	147만 2939명
전국	13.4%	18.4%	21.1%
	3월 10일	3월 17일	3월 31일
서울	9만 2559명 (7.6%)	14만 6971명 (12.0%)	18만 8685명 (15.5%)
부산	9만 1562명 (20/9%)	9만 5206명 (21.7%)	10만 4916명 (23.9%)
대구	7만 8589명 (21.3%)	11만 3155명 (30.7%)	12만 8338명 (34.8%)
인천	4만 1981명 (10.7%)	6만 299명 (15.4%)	12만 5654명 (32.1%)

	3월 10일	3월 17일	3월 31일
광주	2만 7744명 (11.3%)	2만 2457명 (9.1%)	3만 384명 (12.3%)
대전	4만 4803명 (19.3%)	4만 8329명 (20.9%)	4만 5822명 (19.8%)
울산	3만 7748명 (21.2%)	4만 1541명 (23.3%)	4만 5677명 (25.6%)
경기	13만 4272명 (7.7%)	21만 2042명 (12.1%)	26만 2783명 (15.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그러나 전반적으로 3,4월을 지나면서 언론이 보도하는 큰 흐름은 학생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문제점들 외에 크게 부각될 만한 사각 지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토요 휴업일에 상관없이 주말을 사교육으로 보내는 학생들은 늘 있어왔고 충분한 자기 휴식과 취미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있어왔다. 따라서 우리가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꼭 지향해야 할 지점은 학교 교육 일반이 삶의 다양한 측면을 개발할 수 있어서 주말 시간이 그러한 삶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교 교육 활동과 주말 생활이 원활이 연계될 수 있는 교육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다. 얼마나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경험으로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사실 이 고민은 어른들의 지나친 책임감일 수 있다. 도리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기 내면의 요구와 희망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훌륭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의 참여가 많아 질 것이라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전제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가며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문제를 바라본다.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해왔고 시행된 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자 별다른 해결책이 없을 듯한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자기 생각만을 공고히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주5일수업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학생 청소년들이 놓여있는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고등학교가 주말 방과후 학교라는 명칭으로 학습 시간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더 좋은 대안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 상황에서는 말이다. 아이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근본적인 조건을 바꾸는 기획 없이 토요일을 비롯한 주말 특정 시간만을 위한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안의 이 답답한 논의 구조를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a). 주5일수업제 운영매뉴얼(고등학교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2b). 주5일수업제 운영매뉴얼(중학교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2c). 주5일수업제 운영매뉴얼(초등학교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2d). 주5일 수업제 3월 마지막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2012). 2012 주요 업무 계획. 서울: 서울시교육청.

http://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info/info_03_05.html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주제발표 2



주5일수업제에 따른 지역사회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향

김 지 수

(군포시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주5일수업제에 따른 지역사회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향

1. 들어가기

2000년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주5일제가 시작된 후 학교는 2005년 월1회 주5일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월2회로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었으며, 토요일 4교시 수업을 평일로 분산시킬 것인가? 없앨 것인가 논쟁이 있었다. 또한 학교로 보내진 주5일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홍보자료들은, 7월에 수학과 영어교육과정 개정이 고시될 때만 해도 주5일제수업은 '주5일제 대비 교육과정'으로 홍보되었다.

2012년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 되면서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90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업시간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정해진 대로 유지되고,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 수업일은 현행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방침들로 미루어 볼 때 방학은 연간 4일 정도 줄어들 것이며, 월2회 진행되었던 수업이 주중 수업시간으로 분산되면서 주중 수업 시간이 다소 늘어났고, 이로써 평일 여가시간은 다소 줄어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주5일수업제'를 학생이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수업일을 주당 6일에서 5일로 축소하여 실시하는 학교 운영을 말하며, 주5일수업제는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확대하여 학생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5일수업제는 단순히 학교 수업을 5일로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근대교육 체제에서 학교에 분담된 교육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역할 분담을 해 나가자는 것이다. 주5일 노동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처럼 주5일 교육도 교육의 의미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

1) 학교로의 집중화 양상

완전한 주5일 교육이 실현되려면 지금보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분담해야 할 역할들이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교육공간으로서나 교육의 주체로 제대로 서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오히려 학교로 모든 기능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사교육경감대책에 따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적 대안이 되었고, 학교의 돌봄기능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리를 해서라도 늘리는 추세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밤 9시까지 하는 야간돌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 앞 공부방에 다니는 아동을 끌어오는 등의 일도 벌어지고 있다.

2) 가정의 상황 악화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등 불안전노동이 많아지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이혼가정의 증가 등 가정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울 정도여서 당장 저소득층 학생들의 식사와 보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파견근무로 인해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혼한 부모들이 재혼하면서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드러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3) 지역사회의 교육력 미흡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하고 두 달이 넘었지만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줄이고, 학교에만 의존하던 교육적 책임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당초 도입 취지는 여전히 공허하다. 제도적 실효를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구조, 즉 교육시스템의 혁신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는 그다지 없어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학교토요프로그램 참가율 추이를 보더라도 전국 평균 20% 수준인 상황에서 나머지 학생들이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필요하다.

표 III-1 학교 토요일프로그램 참가율 추이

	93만 5913명	128만 5573명	147만 2939명
전국	13.4%	18.4%	21.1%
	3월 10일	3월 17일	3월 31일
서울	9만 2559명 (7.6%)	14만 6971명 (12.0%)	18만 8685명 (15.5%)
부산	9만 1562명 (20.9%)	9만 5206명 (21.7%)	10만 4916명 (23.9%)
대구	7만 8589명 (21.3%)	11만 3155명 (30.7%)	12만 8338명 (34.8%)
인천	4만 1981명 (10.7%)	6만 299명 (15.4%)	12만 5654명 (32.1%)
광주	2만 7744명 (11.3%)	2만 2457명 (9.1%)	3만 384명 (12.3%)
대전	4만 4803명 (19.3%)	4만 8329명 (20.9%)	4만 5822명 (19.8%)
울산	3만 7748명 (21.2%)	4만 1541명 (23.3%)	4만 5677명 (25.6%)
경기	13만 4272명 (7.7%)	21만 2042명 (12.1%)	26만 2783명 (15.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4월11일~2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생 1,523명을 대상으로 ‘토요일 어린이 생활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

“토요일에 주로 한 일을 두가지만 골라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한 일	빈도 (%)
TV 시청	808 (53.1%)
컴퓨터 사용	680 (44.7%)
운동	385 (25.3%)
취미 생활	381 (25.0%)
기타	208 (13.7%)
개인 학습	171 (11.2%)
학교 토요일교실	144 (9.5%)
학원이나 과외	133 (8.7%)
체험활동	60 (3.9%)
여행	57 (3.7%)
봉사활동	15 (1.0%)

*자료: 참교육연구소, 4월 전국 초등 5,6학년생 1523명을 대상으로 ‘토요일 어린이 생활 실태 및 의식조사’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토요일을 주로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의 53.1%(복수응답)는 “토요일에 주로 TV를 시청한다”, 44.7%는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부모와 함께 토요일 활동 계획을 세워 본 어린이는 전체 응답자의 31.7%에 그쳤다. 또한 토요일 점심식사의 경우 “혼자 점심을 먹는다” 27.9%, “끓는다”는 응답도 3.2%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로 초등학교 전체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경우 1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토요일 점심을 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참여할 만한 토요일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4.4%에 그쳤다.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사회교육시설이 충분하다는 응답도 31.2% 정도였다. 반면 토요일에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3명 이상이 ‘마음에 드는 개설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했다.

4) 사교육 활성화로 양극화 심화 - 초·중고 학생 70% "사교육 경험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보고서에서 학생의 학교급별·요일별 학습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도의 경우 주5일수업제 실시 이전이라 토요일 학교학습 시간이 많았지만 2009년 주5일수업제 실시로 격주 토요일 휴업일로 인해 학교학습시간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나 반대로 학교외 학습 시간은 초, 중, 고등학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 학생의 학교급별·요일별 학습시간

(시간:분)

		초등학생1			중학생			고등학생		
		학습	학교 학습2	학교외 학습3	학습	학교 학습2	학교외 학습3	학습	학교 학습2	학교외 학습3
평 일	2004	7:33	4:55	2:37	8:45	6:04	2:40	10:14	8:32	1:42
	2009	7:49	4:42	3:06	9:04	6:01	3:01	10:47	9:08	1:39
토요일	2004	4:36	3:28	1:07	5:26	3:43	1:42	7:09	4:38	2:30
	2009	3:06	1:39	1:26	4:08	1:34	2:32	5:58	2:52	3:05
일요일	2004	1:19	0:02	1:16	2:03	0:01	2:01	3:44	0:37	3:06
	2009	1:31	—	1:29	2:34	0:01	2:32	4:12	0:32	3:39

주) 1. 초등학생 중 만 10세 이상만 포함
 2. 학교에서의 정규수업, 보충수업, 자율학습 포함
 3. 정규수업외 수강, 학교외에서의 스스로 학습 등 포함
 출처 :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통계청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보고서에서 학생의 행동별·학교급별 요일평균 사용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수면시간의 경우 2004년과 2009년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은 늘어났으며, 중학생은 동일했고, 고등학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동일한 반면 중, 고등학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은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5일수업제가 실시된 이후 여가시간은 실시 전 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4

학생의 행동별·학교급별 요일평균 사용시간

(시간 : 분)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4	2009	증감	2004	2009	증감	2004	2009	증감	2004	2009	증감
필수생활시간	10:34	10:49	0:15	11:19	11:43	0:24	10:39	10:58	0:19	9:48	10:02	0:14
수면	8:01	7:57	-0:04	8:50	8:56	0:06	8:11	8:11	0:00	7:16	7:11	-0:05
식사 및 간식	1:28	1:35	0:07	1:29	1:36	0:07	1:25	1:31	0:06	1:26	1:33	0:07
기타 개인유지1	1:05	1:17	0:12	1:00	1:11	0:11	1:04	1:17	0:13	1:07	1:18	0:11
의무생활시간	8:46	9:01	0:15	7:45	7:47	0:02	8:55	9:01	0:06	10:42	10:49	0:07
일(수입노동)	0:25	0:21	-0:04	-	-	-	0:00	0:00	0:00	0:08	0:03	-0:05
가사노동2	0:18	0:21	0:03	0:12	0:13	0:01	0:12	0:13	0:01	0:10	0:10	0:00
학습	6:23	6:39	0:16	6:14	6:14	0:00	7:19	7:24	0:05	8:52	9:10	0:18
이동	1:40	1:40	0:00	1:19	1:21	0:02	1:24	1:24	0:00	1:32	1:25	-0:07
여가생활시간	4:39	4:10	-0:29	4:56	4:30	-0:26	4:25	4:01	-0:24	3:30	3:10	-0:20
미디어 이용	1:43	1:29	-0:14	1:48	1:36	-0:12	1:41	1:30	-0:11	1:16	1:05	-0:11
교제	0:46	0:47	0:01	0:30	0:36	0:06	0:42	0:43	0:01	0:45	0:45	0:00
종교·문화·스포츠	0:26	0:25	-0:01	0:24	0:25	0:01	0:20	0:20	0:00	0:18	0:19	0:01
취미 및 그외3	1:28	1:08	-0:20	2:02	1:39	-0:23	1:32	1:11	-0:21	1:01	0:46	-0:15

주) 1. 개인위생, 외모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등, 2.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3. 독서, 컴퓨터게임, 놀이 유흥 등
출처 :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통계청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듯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9일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시·도교육청 672명 단속인원을 투입해 전국 5,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했으며, 총 31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 불법 기숙형 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미등록 교습과정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교습시간 위반이 72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49건(15.8%), 장부 미비치·부실기재 46건(14.8%), 미신고 개인과외 24건(7.7%)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5월 2일 0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2012 청소년 통계를 공개했는데, 2011년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1.7%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4.6%, 중학생 71%, 일반 고등학생 58.7%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올라갔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정에서는 학생의 절반이 안 되는 35.3%만 사교육을 받았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이 중 중학생 26만 2000원, 일반고등학생 25만 9000원, 초등학생 24만 1000원으로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았다.

‘나홀로 학생’이 늘어나 교육의 공백현상 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고, 농·어촌 등 읍면 지역에서는 사회교육 기반 시설의 부재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가정의 일손을 돕거나 학생 홀로 집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양적·질적으로 교육기회가 풍부한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시골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3. 지역사회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향

1) 지원체계적인 활성화 방향

(1)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전문성 있는 청소년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동아리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통해 동아리활동 자체가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아리 전문연수들이 수준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지원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가진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전문지도자의 배치와 연관성 있는 동아리간의 네트워크 구성 지원, 분야별 동아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겨룰 수 있는 장들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아리연합회 구성을 통해 동아리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신들의 활동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학교시설을 연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중 수련원과 수련관은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지만 지역의

청소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아니며,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는 스포츠활동 자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시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운동장 및 강당, 체육관 등을 활용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체육회, 생활체육협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활동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며, 각종 스포츠와 관련한 동호회들과의 네트워크구성도 중요하다.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즌별 작은 대회들을 개최하는 것들이 필요하며, 스포츠관람 등의 체험활동들이 병행, 민간자격증 등을 통해 참여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 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요리와 과학실험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게 학교의 가사실과 과학실험실을 활용한 청소년활동들이 개발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시청각실을 활용한 미디어교육이나 영상교육 등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 필요

주5일수업제는 단기적으로는 학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점차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의 변화 및 확대 과정에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학교가 가정과 지역사회를 동등한 파트너관계로 대하지 않고, 학교를 도와야 하는 ‘보조자’로의 인식을 바꾸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과 ‘상호성’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 물론 지역사회 기관들은 주5일수업제를 위한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 과중, 공식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이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 보장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도 학교도 자신들의 자원과 인력, 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연대하지 않으면, 즉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과 계층에는 학교와 지역사회, 행정기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의 사회 교육 담당자 사이에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학교시설의 개방, 지역 사회 시설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만들어가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의 마을’을 늘려 가는 등 주 5일제 실시에 대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사회 전체가 다양한 노력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4) 계층간 통합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필요

2007년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수는 총 11,458,701명으로 이 가운데, 절대 빈곤율은 약 7.8%,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120%에 있는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4.2%, 약 11.5% 아이들이 빈곤한 가구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최소한 130만 명 이상이 됨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10만 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기타 방과후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10만여 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중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방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도 방과후 학교도 초등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주5일 수업은 빈부격차로 인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야기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적인 대비들이 있어 왔지만 지역차원으로 주5일 시대에 대비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의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지 못했다. 사회적 배제가 단순히 빈곤 문제를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빈곤문제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배제가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배제 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의 와해에서 오는 고립감과 소외감, 박탈감 등 심리적 배제 현상과 다른 집단 또는 구성원과의 소통부재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 등의 문화적·정신적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이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계층간 통합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층간 통합교육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도 아닌데... 취약계층이나 맞벌이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주말 이들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 등도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가시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문제, 안전문제 등 동시에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빈곤가정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언제까지 이 빈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릇된 우월감, 낙인 효과, 아이들 정서에 대한 기성세대의 몰이해,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반교육적 방침, 교사의 편견 등에 의해 계층간 갈라놓는 교육의 현실이 아닌 경제적인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야만 받을 수 있는 몇 톨의 동냥 같은 지원금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동일한 존중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아닐까 싶다.

한 공간에 여러 계층의 아이들이 섞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을 가진 아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긍정적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계층간 통합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들이 만들어지고, 그 교육 과정들을 통해 아이들은 갈등을 끝까지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 그 갈등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잃어 버렸던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해 계층간 통합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의 제공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5일 시대로 자의든 타의든 늘어난 여가시간에 대해 지역차원으로 창의성과 자신감, 소통능력의 증진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지원될 수 있다면,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로 인한 상실감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활동내용의 활성화 방향

(1) 청소년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자치활동의 확대 필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자기성장과, 지속적인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창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치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은 청소년자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며,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인권신장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청소년이 어떠한 인권을 향유해야 하는지 알리는 작업, 인권을 기준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반성하고, 차근차근 대안의 질서를 만드는 공동의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은 청소년 자치활동을 통해 가능할 것이며, 한국 사회 전반과 일상을 민주화하는데 동력으로 재생산 될 것이다.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주체적 활동이라는 특성과 크고 작은 집단을 통해 만들어 가는 공동체 활동이라는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의 생활 현장에서 뿌리내려 삶으로 존재한다는 특성을 담고 있다.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 절대다수가 학생이며,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삶의 현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활동내용에 있어 두발자유화, 0교시폐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교내 청소년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활동은 개별 단위 학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크고 작은 조직들과 연계하여 지역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줘요”를 외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도와줘요”를 외치는 청소년이라면 결코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자치활동은 문제해결을 해 줄 ‘어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화된 세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직들은 청소년의 밑바닥 정서까지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정도의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도록 제도화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 교육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활동

주5일수업제는 어쨌거나 청소년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뭔가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보다 경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사람과 좋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내는 일부터 청소년들과 함께 시작한다면 청소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분명 작은 숨통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삶이고, 청소년들이 지금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적 선택이 아닐까 싶다.

(3) 인권을 존중하는 활동

성과사회에서 뭔가 성과를 냈다고 내보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청소년 현장도 살아 나마야 하니까 단기적인 성과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활동보다는 프로그램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기 보다는 트렌드를 쫓아 프로그램들을 만들기에 급급했었다. 그러나 성과사회에서 모든 것이 숫자로 판단되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일, 마을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존재,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 이것만큼 살맛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들을 청소년들 스스로가 찾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해나갈 수만 있다면 청소년들의 삶이 친인권적인 삶으로 빛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사는 게 직업이고 노는 게 일이 되는 활동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년 학교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남녀 학생 모두 능력 발휘와 보수를 가장 중요한 직업선택 기준과 직업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공무원, 경찰관, 간호사, 회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정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안정적인 보수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직업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2011년부터 학교에서 창의적체험활동이 실시되면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하루짜리 진로체험에 그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들도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바리스타, 파티쉐, 셰프, 네일아트 등 트렌드화된 단순한 진로체험프로그램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진로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직업가치관으로 인해 하고자 하는 동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결정하고 인생의 어디에서 만족을 얻느냐를 결정한다. 삶의 목표 등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진로선택 시 청소년들의 흥미, 적성, 성격 등과 함께 직업가치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업 환경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가치가 충족될 수 있는 직업 환경에서 근무할 때 높은 직업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직업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은 최근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5) 협력과 연대 능력

청소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면 그동안 역할을 나뉘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익숙한 것은 잘 하는데,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왜 이 활동을 해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다보면 활동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잔소리꾼이 되어 모두가 불쾌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지만 심각한 것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에 대한 배제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단순히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들을 나누어 결정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6) 국제 이해 능력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지구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생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삶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국제화에 대한 훈련이다. 이런 훈련의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살아가고 공부해야 하는 명확한 목표를 심어주게 되며, 단순히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함을 내면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이해 능력, 즉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에 의하여 각 국민 사이의 인종 · 종교 · 성별의 차이를 초월하여 발현하는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이해 능력을 가지고, 세계화시대에 맞는 보편적 가치와 조화의 질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4. 마무리하며

주 5일수업제가 제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여가시간에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가란 말 그대로 “일이 없어 한가로운 시간”을 의미한다.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소진된 기운을 되찾고, 자신의 관심과 즐거움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가의 본래 의미가 아닐까? 현실에서는 주5일 수업제 실시 이후 여가시간이 확보 되었음에도 소진된 기운과 마음을 복돋우는 시간으로서의 여가시간보다는 현장체험, 현장학습, 주말학원가기 등 여가시간에 무엇인가 끊임없이 학습하기 위해 돈을 쓴다. 여가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공연을 보든 체험을 하든 학습을 하든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마치 청소년들이 빈둥거리고, 늦잠자고, 여유롭게 쉬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확산된 '몰링(Malling)족'은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쇼핑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 외식 · 레저 등을 한곳에서 가능한 여가활동의 한 형태인 몰링이 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캠핑, 낚시 등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여가용품 매출이 품목별로 최대 7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이제 여가문화도 상품이 되었다. 여가가 상품이 되는 세상 그러나 그 이면에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고용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여가시간이 이제 돈이 없으면 즐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여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돈이 없어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웃기지만 여가문화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빈둥거리고 쉴 수 있는 시간으로써의 여가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모자란 잠을 보충하는 시간,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했던 책을 보는 시간, 화초를 기르고, 가족과 함께 집안청소를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악기를 연주하고,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밀어두었던 소중한 일상들을 되살려 내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가시간들이 다시 자리매김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가족과 대화도 하고 같이 TV시청도 하고, 함께 요리도 해 먹고, 뒷산도 거닐면서, 게임도하고, 비디오도 감상하면서 함께 하지 못했던 일상생활들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으로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여가문화를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이 청소년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

참고문헌

통계청(2009).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서울:통계청.

뉴시스. 주5일수업하니 불법 주말 기숙학원 기승…311곳 적발 (2012.04.09).

<http://news.zum.com/articles/2118356>

아시아경제. [2012 청소년통계] 초중고 학생 70% "사교육 경험 있다" (2012.05.0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50210474908558>.

연합뉴스. 주5일제수업 전면시행…여가용품 판매 늘어(2012.03.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3/15/02000000000AKR20120315113300017.HTML>

오마이뉴스. 2011년부터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하나? (2009.11.0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5149

헤럴드경제. [주5일수업제 두 달] 초등생 2명 중 1명 “토요일에 그냥 TV본다” (2012.05.04).

<http://news.zum.com/zum/view?id=037201205042363686>.

토론문 1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방향 I

권 준 근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방향 I

주5일수업제의 새로운 갈림길

2012년 1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는 2006년 월 2회 주5일수업제가 적용되어 지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연장선에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길로 향하고 있다. 기존에는 월 2회 주5일 수업을 진행하던 학교를 중심으로 전면실시를 대비한 운영의 과정이었기에 현재 주5일수업제의 전면실시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으로 느껴지지만 실상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갈림길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주제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월 2회 진행되었던 수업이 주중 수업시간으로 분산되면서 주중 수업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평일 여가시간은 다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토요일봄교실, 토요일방과후학교 등 주5일수업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들은 앞 다투어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매주 2일이 휴일이라는 시간적 여유는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어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5일수업제의 전면실시는 기존 상황들과는 달리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새로운 과제를 떠안고 단순 연계가 아닌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창출해내고 지원하는 새로운 갈림길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시선 및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이에 새로운 주5일수업제에 맞는 청소년활동의 방향은 몇 가지 제시점을 포함하고 있다.

변화 속 청소년활동 방향

첫 번째,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 정책 및 프로그램은 늘어난 주말 여가시간만큼 많은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보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청소년 중심의 활동이기보다는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많아 보인다. 토요일봄교실, 토요일방과후학교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활동들은 기존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들로 그 차별성이 적어 보인다. 또한 주5일수업제는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교교육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스포츠, 사회·자연체험 등을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데 반해 학교로의 기능적인 집중은 다양한 연계를 통한 자원전달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의 인식 변화 또한 현장에서 느끼는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들에 대한 교사들의 준비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가로막고 있는 학교라는 울타리는 지역사회가 쉽게 열지 못하는 커다란 문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 내 환경속에서도 교육청의 지원 등은 주5일수업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자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각각도로 연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 내 매뉴얼, 우수사례 보급 등을 통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 등은 변화라는 새로운 갈림길에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겠다. 현재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주5일수업제 시행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 내 유관기관 등이 모여 주5일수업제에 대한 지원방안, 연계 등을 논의하며 지역사회 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우수사례 및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통해 발전방안, 연계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주5일수업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겠다.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에서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동아리활동은 주5일수업제가 청소년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활동시간으로서 주5일수업제의 목표지향점임을 감안할 때 궁극적인 자치활동으로 가장 좋은 활동임에 틀림없다. 2012년 1월에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조사한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청소년활동 요구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활동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 싶은 대상으로 ‘친구’(89.3%)를 꼽았으며 토요일휴업일에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55.5%). 이는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사회성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동아리활동은 개인활동

의 참여보다 그룹참여 형태로 운영되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동아리활동은 현재 주5일을 제외한 학교 밖 활동으로의 동아리활동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인 활동이라 하겠다. 현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동아리활동은 그 활동 자체만으로도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창의적체험활동에서의 동아리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5일을 제외한 활동에서 동아리활동을 학교에서 인정하는 문제는 활동에 대한 증빙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들의 활동의 폭을 좁히게 되는 일이다.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동아리 인증이 이러한 문제에 대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해본다. 다만 청소년동아리활동은 자율성에 의해 운영되는 활동이니만큼 동아리활동 인증 등을 통해 또 다른 스펙을 쌓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정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련시설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의 대부분이 대관형태를 띤 동아리들로 공간사용 등에만 그치는 제한적 활동 등에 머물고 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련시설들이 육성동아리 형태의 운영방식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청소년활동 방향의 발자국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소년주말활동센터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4월에 진행 된 ‘놀토엑스포’를 시작으로 주말활동 강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주5일수업제는 이제 기존의 형태가 아닌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겹치레식 활동지원이 아닌 주5일수업제 관련 주체들의 명확한 역할 인식 제고를 통해 일괄적이고 연계 가능한 통합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시청소년주말활동센터의 경우처럼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 등을 연계 해주는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의 연장선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교육,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넘쳐나는 활동들에서 주5일이라는 더하기를 담당해야 할 인프라와 운영예산 등의 시스템 구축은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요건인 것이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 모두 단순체험활동 중심에서 진로,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대처 등의 질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호응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우수사례 발굴 등 학교, 단체 및 시설들의 프로그램들을 발굴, 보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단순 체험활동위주여서 실제 참가 청소년들의 참여범위가 높지 않다. 또한 단순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이 다보니 참가청소년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으로 중, 고생에 대한 프로그램의 보완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순체험활동보다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도가 있어야 하며 전문 인력 및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주5일수업제가 올해 처음 전면 실시되면서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는 공보의 강화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청소년의 40%가 프로그램을 잘 몰라 참여를 못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성에 대한 인지 뿐 아니라 활용적인 측면에서의 공보가 꼭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유스내비’의 경우가 서울시 교육청과의 연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통합적인 공보서비스 체계를 갖추으로써 공보의 좋은 대표 사례가 되듯이,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한 새로운 공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 막 새로운 갈림길로 접어든 지금, 주5일수업제 이후의 여가시간에 대한 활동들이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도 한다. 이 모든 활동들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주5일수업제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깊이 있는 발자국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갈림길로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다.

토론문 2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방향 II

정은식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국장)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방향 II

주5일수업제가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는하나 극히 소수의 학교만이 시행하지 않을 뿐 전면 시행된바 다름없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김영삼 장학사께서 발표하신 학교에서의 주말활동 운영 현황과 군포사당동 청소년문화의집 김지수 관장의 지역사회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는 시의 적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김영삼 장학사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관점으로 똑같은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과 청소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근본적인 조건을 바꾸는 기획 없이 주말 특정 시간만을 위한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안의 이 답답한 논의 구조를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데 많이 공감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주5일수업제에 따른 주말활동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서 밝혔듯 주말활동 운영 현황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가진다. 교육과정 개정에 의한 수업의 연장이라는 것인가?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가 관여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토요일 순환근무를 하면서 활동을 운영해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럼 그게 주5일수업제인가?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친구들과 만나는 곳이고,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인지되어 있으므로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나 이 때문에 수업일이 아닌 주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거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김영삼님의 원고의 내용 중 교과부의 학교급별 운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편성,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 우리 나라의 교육이 문제풀이, 답 찾기 식의 주입식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창의성이 말살되어 시험 성적은 우수하지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이, 부모의 강요에 학교외에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우리 청소년의 ‘지적 역량’은 OECD 36개국 중 2위이지만,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협력도를 보여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5위에 불과(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하다는 연구 결과와도 상응하는 것이며 교육과정 개정으로 ‘창의적체험활동’과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 등으로 청소년의 인성과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교육 그 자체의 목표보다는 취업을 위한 도구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인격을 쌓고 교양을 높이는 것보다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 12)는 현실은 학교와 청소년계에서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본인보다 잘 살고 출세하는 입신양명의 기회가 우선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의 공감대는 가지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지도사¹⁾는 학교와 교사²⁾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미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기 오래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태생부터 청소년들의 돌봄과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³⁾’를 포함한 동아리, 문화, 참여와 인권,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학교는 주5일수업제와 관련하여 주말활동의 가짓수를 위해 지역사회(청소년수련시설)와 연계,

1)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백서
p381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현황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21	168	216	174	41	116	6
공공	464	165	213	43	25	12	6
민간	257	3	3	131	16	104	0

p393 <표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현황 총23,779명(1급 1,380 2급 14,881 3급 7,518)

2)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통계및홍보(간행물)-주요교육통계)

구분(2011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유 치 원	8,424	564,834	38,662
초등학교	5,882	3,132,477	180,623
중 학 교	3,153	1,910,572	110,658
고등학교	2,282	1,943,798	131,083
특수학교	155	24,617	7,407
전문대학	147	776,738	12,891
대 학 교	202	2,208,608	60,787
대 학 원	1,167	329,934	6,516

3) 2005년 9월부터 46개소 시범운영,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현재 200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youthacademy.or.kr/>) 참조

협력이라 하지만 실상은 학교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변의 학교에서 연계, 협력을 요구했을 때 충분히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는지 되돌아 보아야할 것이다. 어쩌면 공부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가만히 놔두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게 창의성을 길러주는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어찌되었든 주5일수업제는 이미 시행된 지 2달여가 지나고 있으며, 이 세미나에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알찬 내용의 활동을 제공하고자하는 마음을 가진, 행동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 대상 청소년들이 각기 다른 청소년들이 아니며, 서로 연계,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 좋은 방안들이 도출될 것을 기대하기에 더욱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NYPI 기획세미나 :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

인 쇄 2012년 5월 24일

발 행 2012년 5월 2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